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석사학위논문

한 · 중 미각어의 의미 대조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 호 파

한 · 중 미각어의 의미 대조 연구

A Contrastive Study of Metaphorical Extensions in
Korean and Chinese 'Taste' Words

2017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 호 파

한 · 중 미각어의 의미 대조 연구

지도교수 강희숙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 호 과

학효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최영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이금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강희숙 (인)

2017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 대상 및 방법	2
1.3. 선행 연구 검토	3
1.4. 논의의 구성	6
2. 미각어의 개념 및 의미	7
2.1. 미각어의 개념	7
2.2. 미각어의 의미	10
3. 한·중 미각어의 기본 의미의 대조	13
3.1. ‘시다/ 酸’의 기본 의미 대조	13
3.2. ‘달다/ 甜’의 기본 의미 대조	15
3.3. ‘쓰다/ 苦’의 기본 의미 대조	16
3.4. ‘맵다/ 辣’의 기본 의미 대조	18
3.5. ‘짜다/ 鹹’의 기본 의미 대조	20
4. 한·중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 대조	23
4.1. ‘시다/ 酸’의 은유적 의미 대조	23
4.2. ‘달다/ 甜’의 은유적 의미 대조	34

4.3. ‘쓰다/ 苦’의 은유적 의미 대조	45
4.4. ‘맵다/ 辣’의 은유적 의미 대조	61
4.5. ‘짜다/ 鹹’의 은유적 의미 대조	73
5. 결론	83
<참고문헌>	94

표 목 차

<표 1> 사전에 제시된 ‘미각’의 정의	7
<표 2> ‘시다’의 기본 의미	13
<표 3> ‘酸’의 기본 의미	14
<표 4> ‘시다’와 ‘酸’의 기본 의미 대조	14
<표 5> ‘달다’의 기본 의미	15
<표 6> ‘甜’의 기본 의미	15
<표 7> ‘달다’와 ‘甜’의 기본 의미 대조	16
<표 8> ‘쓰다’의 기본 의미	16
<표 9> ‘苦’의 기본 의미	17
<표 10> ‘쓰다’와 ‘苦’의 기본 의미 대조	18
<표 11> ‘맵다’의 기본 의미	19
<표 12> ‘辣’의 기본 의미	19
<표 13> ‘맵다’와 ‘辣’의 기본 의미 대조	20
<표 14> ‘짜다’의 기본 의미	21
<표 15> ‘鹹’의 기본 의미	21
<표 16> ‘짜다’와 ‘鹹’의 기본 의미 대조	22
<표 17> ‘시다’의 은유적 의미	23
<표 18> ‘酸’의 은유적 의미	24
<표 19> ‘시다’ 기준 ‘酸’의 은유적 의미 대조	26
<표 20> ‘酸’ 기준 ‘시다’의 은유적 의미 대조	26
<표 21> ‘달다’의 은유적 의미	34

<표 22> ‘甜’의 은유적 의미	35
<표 23> ‘달다’ 기준 ‘甜’의 은유적 의미 대조	36
<표 24> ‘甜’ 기준 ‘달다’의 은유적 의미 대조	36
<표 25> ‘쓰다’의 은유적 의미	45
<표 26> ‘苦’의 은유적 의미	46
<표 27> ‘쓰다’ 기준 ‘苦’의 은유적 의미 대조	48
<표 28> ‘苦’ 기준 ‘쓰다’의 은유적 의미 대조	48
<표 29> ‘맵다’의 은유적 의미	61
<표 30> ‘辣’의 은유적 의미	62
<표 31> ‘맵다’ 기준 ‘辣’의 은유적 의미 대조	63
<표 32> ‘辣’ 기준 ‘맵다’의 은유적 의미 대조	64
<표 33> ‘짜다’의 은유적 의미	73
<표 34> ‘鹹’의 은유적 의미	74
<표 35> ‘짜다’ 기준 ‘鹹’의 은유적 의미 대조	75
<표 36> ‘鹹’ 기준 ‘짜다’의 은유적 의미 대조	75
<표 37>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은유 범주 대조	85
<표 38> ‘시다/ 酸’의 은유적 의미	86
<표 39> ‘달다/ 甜’의 은유적 의미	87
<표 40> ‘쓰다/ 苦’의 은유적 의미	88
<표 41> ‘맵다/ 辣’의 은유적 의미	89
<표 42> ‘짜다/ 鹹’의 은유적 의미	90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f Metaphorical Extensions in Korean and Chinese 'Taste' Words

Hao Xiaobo

Advisor: Prof. Kang Huisuk,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aste is one of indispensable five senses in human life. Also, food to tast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human survival. It means taste is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and in this sense, taste can even affect human language life. Of course, tastes that human beings experience are universal, but in real language life, the meanings of tastes expand. For this reason, each cultural area has differences in meaning extension or utility. Based on this f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basic meanings with metaphorical meanings of five taste-terms from Korean language and Chinese language; '시다/ 酸', '달다/ 甜', '쓰다/ 苦', '맵다/ 辣', and '짜다/ 鹹'. The discussion development processes and findings are as follows.

In Chapter 1, the purpose and the necessity of the study, the study targets and the study methods and the previous studies were discussed. Also, it was mentioned tha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e intention of the study was to study new meanings of Korean and Chinese taste-terms in real language life from a contrastive point of view, in addition to basic meanings and metaphorical meanings.

In Chapter 2, the concept of 'taste-terms' and 'basic meanings' and 'metaphorical meanings' of taste-terms were considered. The concept of

taste-terms was defined, on the basis of the meanings presented in the dictionary and the discussions in the preceding studies. Moreover, the basic meanings of the five taste-terms were analyz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metaphorical meanings were analyzed, from a perspective of cognitive semantics.

In Chapter 3, basic meanings of Korean and Chinese taste-terms in Korean dictionary and Chinese dictionary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basic meanings of taste-terms from the two languages were all similar to one another.

In Chapter 4, the metaphorical meanings of the five taste-terms in Korean dictionary and Chinese dictionary were compared to the new meanings in real language life. As a result, the examples provided by the corpus data of the two countries showed common things and differences in metaphorical meanings from Korean language and Chinese language.

In Chapter 5, a conclusion was extracted from the discussion above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mentioned.

Although there have been a considerable number of comparative studies on meanings of taste adjectives from Korean language and Chinese language, there has been a relative lack of comparative studies on common things and differences in basic meanings and metaphorical meanings. However,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y demonstrating common things and differences in basic meanings and metaphorical meaning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taste-terms from Korean language and Chinese language and considering aspects of new metaphorical meanings of taste-terms in real language life and meanings of buzz words deriving from them.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study findings would help Korean learners and Chinese learners understand meanings of taste-terms in real language life and utility aspects accurately.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사람들은 식생활에서 생리적으로 느끼는 ‘맛’을 미각어로 표현한다. 미각(味覺, taste sense)은 외부의 자극이나 체내의 자극을 느끼고 인식하는 감각의 한 종류로서, 혀의 미뢰¹⁾(味蕾, taste bud)에 의하여 화학적 자극을 느끼는 감각을 말한다(배해수 1982: 68). 이러한 미각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미각어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가 그러하듯, 미각의 사용 범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의 의미가 서로 다르고 그 쓰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두 언어를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인 또는 중국인이 미각어를 학습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령, 쉬야(2016)에서는 한국어에는 미각 고정 표현이 많으므로 학습할 때 파생 의미 간의 차이를 기억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학습자들이 미각어 자체의 의미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정 표현들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중국 미각어를 학습할 때도 나타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미각 형용사 대조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미각어의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상세하게 고찰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시다/酸’, ‘달다/甜’, ‘쓰다/苦’, ‘맵다/辣’, ‘짜다/鹹’과 같은 오미(五味)의 의미를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 두 가지로 구분하여 대조함으로써, 한국어 혹은 중국어 학습자들이 그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 또는 중국어 학습자에게 두 언어 미각어의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습득하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언어적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맛을 느끼는 미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곳. 혀바닥에 솟아 있는 수많은 돌기를 유두라 하는데, 미뢰는 이 유두의 옆구리에 모여 있다. 침 속에 녹아 들어오는 특정 이온이 미세 융모를 자극하면 그곳에 연결된 신경 세포가 뇌에 정보를 전달해 맛을 느끼게 된다. 보통 당류나 유도체는 단맛을 느끼게 하고, 수소 이온은 신맛을, 칼륨이나 마그네슘 금속 이온은 쓴맛을, 염화나트륨과 같은 염류는 짠맛을 느끼게 한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미각어에 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권희정(2008)에서는 ‘달다, 시다, 쓰다, 맵다, 짜다, 뽀다’의 여섯 가지 미각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왕천(2013)은 ‘달다, 시다, 쓰다, 맵다, 짜다, 뽀다, 싱겁다’의 일곱 가지 미각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의 연구 범위는 한·중 미각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시다/ 酸’, ‘달다/ 甜’, ‘쓰다/ 苦’, ‘맵다/ 辣’, ‘짜다/ 鹹’이다. 미각어의 의미를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미각어의 기본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서 제시하는 의미 정보를 정리하고 대조해야 한다. 한국의 사전 자료는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어대사전(2000)》,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를, 중국의 사전 자료는 《古今漢語詞典(2002)》, 《現代漢語規範詞典(2004)》, 《現代漢語辭典(2005)》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위의 한국어 사전 세 가지는 한국 국어학 영역에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선정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국가에서 최초로 직접 편찬한 국어사전이다. 이 사전에는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 방언, 옛말 등 50여 만 단어가 수록되어 현재까지 출판된 사전 중 가장 많은 수의 단어가 포함되었다. 《국어대사전(2000)》은 1960년대 이래 한국 일반교양용 사전으로는 가장 정확한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는 1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편찬한 최초의 한국어대사전이다.

한편, 나머지 중국어 사전 세 가지는 중국에서 응용 범위가 큰 사전이라 할 수 있기에 선정하였다. 《現代漢語辭典(2005)》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보통화체²⁾ 사전에 해당한다. 《古今漢語詞典(2002)》는 명칭 그대로 고대 한어에 관한 사전이지만, 중국 고대 한어와 현대 한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둔 것으로, 《現代漢語辭典(2005)》의 기능도 겸하는 사전이다. 《現代漢語規範詞典(2004)》는 현재 통용되는 대표적인 현대 한어 사전으로, 이러한 점에서 선정한 데 있어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사전에서 제시하는 미각어의 의미와 함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한·중 미각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2) 보통화체는 중국어의 표준말체를 의미한다.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는 한국과 중국 미각어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말뭉치에 나타나는 용례를 통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섯 가지 미각어와 함께 쓰이는 어휘를 추출하여 범주화한 후 어휘적 특징에 따라 대조를 중심으로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한·중 미각어의 은유적 용례 대조를 통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기로 한다. 한국어 말뭉치 자료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제공하는 ‘SJ-RIKS Corpus³⁾’를, 중국어 말뭉치 자료는 ‘CCL말뭉치 검색시스템 (CCL語料庫檢索系統)⁴⁾’을 활용하였다.

1.3. 선행 연구 검토

최근 한·중 미각어에 대한 대조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권희정(2008), 조운경(2009), 만린(2010), 료자자(2010), 이민(2011), 왕천(2013), 유양(2013), 풍금란(2013), 양기(2014), 최순희·왕혼(2014), 주문형(2015), 이원(2016), 완방려(2016) 등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유일쌍(2009), 김선희(2012)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한·중 미각어를 대조한 최초의 연구는 권희정(2008)이다. 그 이후로 한·중 미각어를 대조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15편의 한·중 미각 형용사를 대조한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이들 중 료자자(2010), 김선희(2012), 유양(2013), 풍금란(2013), 양기(2014), 완방려(2016)은 다섯 가지 미각어인 ‘달다, 시다, 쓰다, 맵다, 짜다’를 중심으로 대조한 연구에 해당한다. 한편, 권희정(2008), 만린(2010), 왕천(2013), 최순희·왕혼(2014)는 다섯 가지 미각어와 함께 다른 미각어⁵⁾ 또한 포함하여 대조하였다. 또한 유일쌍(2009), 조운경(2009), 이민(2011), 주문형(2015), 이원(2016)은 다섯 가지 미각어인 ‘달다, 짜다, 시다, 쓰다, 맵다’ 중 한두 가지만을 선정하여 대조 분석한 연구에 해당한다.

3) SJ-RIKS Corpus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50여 년간 한국 현대사와 흥룡과 곡절을 함께하며 대표적인 한국학/한국문화 연구기관의 하나로 성장해 왔다. SJ-RIKS Corpus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분과의 경계를 넘어 문화 연구로, 둘째, 국제 협력의 확대와 한국학의 시야 확장, 셋째, 인문학적 관심과 정보기술의 창조적 결합, 넷째,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연구공동체이다.

4) CCL語料庫檢索系統 (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은 북경대학교언어학연구중심에서 개발한다. 정식 명칭은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語料庫 (북경대학교 중국 언어학 연구 중심 말뭉치)이다. 중국에서 권위 있는 지위를 차지하는 말뭉치검색시스템이다.

5) 선행 연구에 따르면 ‘뽕다, 싱겁다, 고소하다’ 등이 언급되었다.

다섯 가지 미각어를 중심으로 대조한 연구로, 료자자(2010)에서는 한국과 중국어 미각어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미각 형용사의 어휘장과 확장된 의미 양상의 분석을 통하여 두 나라 사람들의 인지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었다. 또한, 미각 형용사의 기본 의미가 맞을 나타내는 것과 다른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맞을 나타내는 것 두 가지로 크게 분화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유양(2013)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의 확장 의미를 대조하여 실제 언어 생활에서 두 언어의 미각어가 파생된 의미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러한 의미 파생의 경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확장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냈다. 풍금란(2013)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두 언어 미각 형용사의 은유적인 의미, 공감각적인 의미와 인지적 의미 대조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지적 차이를 밝혀내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 언어에서, 미각 형용사의 인지적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양기(2014)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다섯 가지 미각어의 단일, 파생, 합성의 세 가지 형태 구조와 더불어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분석 및 비교하였으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밝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방려(2016)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미각 형용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두 언어 미각 형용사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대조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 다섯 가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문을 분석하고, 미각 형용사와 관련된 문장의 확장 의미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교육용 미각 형용사의 확장 의미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김선희(2012)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 형용사의 은유 및 의미 전이에 대한 대조 분석으로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다섯 가지 미각어와 함께 다른 미각어도 포함하여 대조한 연구로는, 먼저 권희정(2008)에서는 앞선 다섯 가지 미각어에 ‘뺨다’를 추가한 여섯 가지 미각어를 기본 미각어로 삼아 한국과 중국 기본 미각어의 의미 확장의 공통점을 연구함으로써 두 나라 기본 미각어의 형태 및 확장 의미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육미(六味)의 형태와 사용에 대한 대비를 통하여 두 언어 기본 미각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린(2010)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를 ‘달다, 시다, 쓰다, 맵다, 짜다, 뺨다, 기타 미각어⁶⁾’로 분류하여 조어 형태와 의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예문으로써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미

각 형용사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왕천(2013)에서는 생물학적 근거에 따라 네 가지 기본 미각어 ‘달다, 쓰다, 짜다, 시다’를 제시하였다. 또한 ‘맵다’, ‘싱겁다’, ‘뺨다’ 등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미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맛으로 간주하였다. 이어서 두 언어 미각 형용사의 의미 대조를 통하여 많은 공통점을 지녔다는 점을 밝혀냄과 동시에, 두 언어 미각 형용사의 확장 의미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그 확장 의미의 범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미각에서 다른 공감각적 의미로의 전이와 그 역을 다루었던 선행 연구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설명하였다. 최순희 · 왕흔(2014)에서는 미각어 ‘맵다’를 대상으로, 중국어 미각어의 과생 의미는 대부분 사람과 관련이 있지만 한국어 ‘맵다’의 과생의미에는 사람 이외의 날씨, 바람, 기후 등과 같은 자연계에도 쓰인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다섯 가지 미각어인 ‘달다, 짜다, 시다, 쓰다, 맵다’ 중 한두 가지만을 선정하여 대조 분석한 연구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 가운데, 조윤경(2009)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짜다, 싱겁다’의 환유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대조하였다. 이민(2011)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와 중국어 학습자 모두가 맛을 표현하는 미각어 ‘달다/甜’, ‘쓰다/苦’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로서, 두 언어 미각어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의 대조 연구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확장 의미를 지닌 문장을 분류하여 실제 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주문형(2015)에서는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형용사 ‘시다’가 지니는 형태적 · 의미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함으로써 서로의 언어를 학습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원(2016)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미각 형용사 ‘달다’와 ‘쓰다’의 단일 형식과 과생 형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용례도 함께 제시하여 실생활에서도 ‘달다’와 ‘쓰다’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에서 유일쌍(2009)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기본 미각어 ‘뽕(쓰다)’의 기본 의미와 과생 의미를 문화적 관점에서 대조하여 연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미각어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 비하여 한국에서 더 활발한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복합 미각 형용사(달콤매콤하다)나 미각 형용사(달콤하다, 짹짹하다 등)에 국한된 논의라 할 수 있어 미각어에 관한 모든 어휘 양상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

6) 만린(2010)에서 기타 미각어는 한국어의 미각어인 ‘구수하다, 고수하다, 심심하다, 싱겁다, 삼삼하다’와 중국어의 미각어인 ‘香, 香噴噴, 淡’을 포함한다.

하면, 한·중 미각 형용사에 대한 사전적 의미 대조 연구가 비교적으로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의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대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언어 생활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 양상과, 이에 기반하여 파생된 유행어 분야에서의 대조 연구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정리와 함께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미각어의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구분하여 대조함으로써, 한국어 혹은 중국어 학습자들이 그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1.4. 논의의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 대상 및 방법을 기술한다. 이후, 한국과 중국의 미각어에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이루어질 연구 과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각어가 포함하는 개념을 귀납적으로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시다/ 酸’, ‘달다/ 甜’, ‘쓰다/ 苦’, ‘맵다/ 辣’, ‘짜다/ 鹹’의 기본 의미를 대조하여 두 나라 미각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은유적 의미 측면에서, 사전에서 제시하는 은유적 의미와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미각어를 대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용례와 함께 두 나라의 미각어에 나타나는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앞선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와 중국어 학습자 모두에게 두 나라 미각어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2. 미각어의 개념 및 의미

본 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의 개념 및 미각어의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 사전에서 ‘미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각 선행 연구에서 학자에 따라 ‘미각어’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비교하며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의 의미를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하겠다.

2.1. 미각어의 개념

미각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서 제시하는 ‘미각’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미각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와 《現代漢語辭典(2005)》에서 제시된 ‘미각’의 정의와 그 의미 대조는 아래와 같다.

<표 1> 사전에 제시된 ‘미각’의 정의

사전	《표준국어대사전(1999)》	《現代漢語辭典(2005)》
단어	미각	味覺
정의	맛을 느끼는 감각. 주로 혀에 있는 맛봉오리가 침에 녹은 화학 물질에 반응하여 일어난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의 네 가지 기본 미각이 있다. 맛감각·미각(味感)	味覺是指食物在人的口腔內對味覺器官化學感受系統的刺激並產生的一種感覺。從味覺的生理角度分類，只有四種基本味覺：酸甜苦鹹，他們是食物直接刺激味蕾產生的。在四種基本味覺中，人對鹹味的感覺最快，對苦味比其他味都敏感，更容易被察覺。 (미각은 음식이 사람의 혀에서 맛에 관한 기관을 자극할 때 일어나는 감

	각이며, 생리적 관점에서는 ‘신맛, 단맛, 쓴맛, 짠맛’의 4가지 맛을 가리킨다.
--	---

위의 <표 1>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기본 미각어는 ‘달다, 쓰다, 짜다, 시다’의 네 가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미각어는 공통적으로 입에서 음식물을 씹는 과정을 통해 외계⁷⁾, 혹은 체내의 자극을 느끼고 혀가 인식하는 감각의 한 종류로서 혀의 미뢰에 의해 화학적 자극을 느끼는 감각을 표현하는 어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미각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김찬구(1981)에서 미각어는 미뢰와 같은 감각세포에 의해 체내의 자극, 또는 외계의 자극에 의하여 맛을 나타내는 모든 어휘라고 하였다. 배해수(1982)에서는 미각은 외계의 자극이나 체내의 자극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오관(五官)⁸⁾의 하나이기 때문에, 미각어는 혀의 미뢰에 의하여 화학적 자극을 느끼는 감각을 표현하는 어휘라고 하였다. 천시권(1989)에서는 미각어는 생물학적 관점으로, 미뢰에서 느끼는 맛에 대한 감각과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라고 주장하였다. 정재윤(1989)에서는 일반적으로 맛은 미각의 인식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각을 언어로 표현할 때 맛 또는 미각어라고 통칭하였다. 정수진(2005)에서는 미각어란 인간의 감각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적 경험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張靖華(2005)에서는 미각어가 인간이 미각 형성의 인식을 기반으로 생겨난 것으로, 이는 미각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타난 문자라고 하였다. 즉, 미각어의 형성 조건은 미각의 개념이 형성된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말하자면 미각어는 미각에 대한 인식보다 늦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에서 가장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수많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미각어는 본래 미각의 고유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음식의 맛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후, 그 음식의 맛을 추상화하여 그에 관한 미각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미각을 표현한다. 미각어는 감각으로

7) ‘외계’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제시하는 의미는 ‘바깥 세계. 또는 자기 몸 밖의 범위’이다.

8)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제시하는 ‘오관’의 의미는 ‘다섯 가지 감각 기관. 눈, 귀, 코, 혀, 피부를 이룸’이다.

서의 미각이 인간의 언어 표지체계에 진입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王明(2009)에서는 미각어를 두 부류로 나누었다⁹⁾. 이러한 미각어의 부류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객관적이면서 실제적인 미각 개념 어휘와 인간의 의식에서 형성된 주관적이면서 추상적인 미각 개념 어휘가 있다. 만립(2010)에서는 미각어의 조건과 그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미각어는 미각과 관련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각어는 음식물을 씹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각과 관련된다. 셋째, 미각어는 감각 표현의 한 종류로서 혀의 미뢰와 관련이 있다. 넷째, 미각어는 화학적 자극이나 체내의 자극을 느끼는 감각과 관련된다. 다섯째, 미각어는 외계의 자극이나 체내의 자극을 느끼는 감각과 관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전적 정의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미각어의 정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정의 또는 감각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 나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각어는 혀의 자극에 의하여 느끼는 감각을 언어로 표현한 미각과 관련된 어휘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9) 王明(2009: 21)에 따르면 미각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味覺詞”包括了表示客觀實在的味覺概念的詞及表示主觀的味覺概念的詞兩部分，即那些反應自然界中客觀存在的真實的味以及人們主觀意識中後天形成的抽象的味印象詞。即，具本味覺詞和抽象味覺詞（如，‘和’，‘美’等）。具體味覺詞就是表示具體味的詞，這些詞的‘所指’都可以直接從具體事物中得到證明。而抽象味覺詞則是那些表示主觀心理之位的詞，這些詞的‘所指’無法直接在具體事務中表現出來，只有通過主體的選擇性認識或者聯覺性質的心理活動才能獲得。具體味覺詞又可以分為兩類，即基本味覺詞和普通味覺詞。基本味覺詞就是表示基本味覺概念的詞，即‘酸，甜，苦，辣，鹹’這五味詞，普通味覺詞是相對於基本味覺詞而言，也就是指除去基本味覺詞以外的其他味覺詞。大部分普通味覺詞是在基本味覺詞的基礎上派生而來的，因此也稱復合味覺詞。例如，‘甜鹹，酸甜，酸辣’等。因此，普通味覺詞的種類也極為豐富。基本味覺詞的‘酸，甜，苦，辣，鹹’發展到現代漢語中已經具有了很強的構詞能力，它們不僅被用語表示味覺概念，還被頻繁地用於標記有味特征的事物現象。如‘酸菜，甜點，苦果，辣醬’等，更被用來指涉由味覺而生的心理感覺或其他感覺，如‘酸軟，甜蜜，苦悶，辣手’等，從而構造出大量的普通味覺詞，成為整個味覺詞群的基礎。”

（‘미각어’는 객관적으로 제시된 미각에 관한 어휘와 주관적으로 제시된 미각에 관한 어휘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전자는 자연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맛에 해당하며, 후자는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의 측면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추상적인 맛을 표현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즉, 미각어의 두 종류는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구체적 미각어와 주체의 행위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추상적 미각어(조화롭다, 좋다 등)인 것이다. 구체적 미각어는 기본 미각어와 보통 미각어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 미각어는 기본적 미각을 표현하는 어휘를 말하는데, ‘시다, 달다, 쓰다, 맵다, 짜다’의 다섯 가지 맛을 나타내는 어휘이다. 보통 미각어는 기본 미각어를 제외한 나머지 미각어를 가리키는데, 대부분 기본 미각어의 기초적인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종류도 매우 많으며, 복합 미각어(달콤짭짤하다, 새콤달콤하다, 매콤새콤하다 등)라 부르기도 한다. 기본 미각어는 이미 강한 조어 능력을 지니며 현재까지 발전해 왔는데, 이는 흔히 미각어의 개념뿐만 아니라 특정한 미각의 성질을 지니는 사물(발효되어 시큼한 맛이 나는 배추절임, 단맛이 나는 빵이나 과자류, 쓴 결과, 매운 맛이 나는 절임 등)에도 표현한다. 또한 심리적인 상태나 다른 느낌(발목 등이 시다, 달콤하고 행복하다, 어렵고 고통스럽다, 혹은 복잡하다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처럼 보통 미각어는 미각어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2.2. 미각어의 의미

본 절에서는 미각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미각어의 기본 의미는 사전에서 제시하는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다.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는 사전에서 제시하는 단어의 확장 의미와 함께 실제 언어 생활을 바탕으로 한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미도 포함한 것이다.

윤평현(2013: 38)에 따르면 기본 의미란 한 언어표현의 의미가 이를 실제로 지시하는 단어나 문장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먼저, 미각어의 기본 의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왕천(2013)에서는 한·중 미각어 ‘달다, 시다, 쓰다, 맵다, 짜다, 뽀다’의 기본 의미를 간단한 표로 나열함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 간 미각어의 기본 의미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주문형(2015)는 ‘시다/ 酸’의 기본 의미와 ‘시다/ 酸’ 계열 어휘의 기본 의미를 대조하였다. 이원(2016)은 사전에서 제시된 한국어와 중국어의 ‘달다/ 甜’, ‘쓰다/ 苦’의 기본 의미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여 대조하였다. 고진(2016)은 한·중 미각어 ‘달다, 시다, 쓰다, 맵다, 짜다, 뽀다, 싱겁다, 고소하다’의 여덟 가지 미각어의 기본 의미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복합 미각 형용사의 기본 의미도 함께 대조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의 기본 의미가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임지룡 · 김동환(2006)에 따르면 은유는 매우 보편적인 언어 현상으로, 전통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사고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학적으로 언어상의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은유는 두 가지 실체나 사고 간의 관계나 유사점 혹은 공통점을 의미상의 축이나 연결고리로 삼아 하나의 표현으로 묶어 내는 표현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추상적이거나 본질적으로 비구조적인 실체나 사고를 보다 구체적인, 혹은 구조화된 대상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한편으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Lakoff & Johnson(1980)에서는 “은유는 인간의 인지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인간의 중요한 사고방식이라 하였다. 인간은 심리, 감정, 시간, 체제와 같이 보이지 않거나 만져질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은 개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개념으로 바꾸어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은유는 특정한 인지 영역을 다른 인지 영역으로 이끌어 투영하는 것이다.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 은유는 언어의 문제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사고 과정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이론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모든 사고와 이해의 뿌리가 우리의 신체적 활동에 있으며, 더욱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는 이를 토대로 하는 은유적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지룡 · 김동환(2006)에서는 언어 생활에서 은유를 사용하는 동기에 대해 “첫째, 글자 그대로의 용법으로 표현하기 불가능한 대상을 표현한다. 둘째, 표현의 생생함을 제공한다. 셋째, 복잡한 개념에 대해서 간결성을 제공한다. 실제로 은유의 기재가 아니라면 ‘시간, 이론, 마음’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표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없으며, ‘감정’과 같이 복합적이고 강렬한 개념을 제대로 포착해 낼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는 인간에게 익숙한 미각어의 인지에서 기타 감각으로의 추상적인 인지 영역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각은 인간의 생리적인 감각이며, 미각으로 느낀 것을 기타 감각으로 유추하는 과정이다. 이는 곧 인간의 신체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감각이 내포된 시스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미각어 ‘시다’의 기본 의미는 ‘음식물의 맛이 식초나 설익은 살구와 같다’로 ‘포도가 시다’, ‘신 과일을 좋아한다’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은유적 의미로는 ‘그녀는 다리가 시다’, ‘발목이 시다’ 등에서는 ‘뼈마디 따위가 뼈었을 때 처럼 거북하게 저리다’ 혹은, ‘눈이 시어 못 보겠다’ 등에서는 ‘하는 짓이 같잖거나 비위에 거슬리다’는 의미로 나타난다. 이외에 신맛의 미각어는 ‘슬퍼서 눈이 시다’ 등의 심리 상태로까지 확장된 의미로 나타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미각어 ‘酸’의 기본 의미는 ‘식초와 비슷한 냄새나 맛’으로, ‘酸味(식초와 비슷한 맛)’, ‘酸辣(시큼하고 얼얼하다)’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은유적 의미로는 ‘酸痛(몸이 시큰시큰 쑤시고 아프다)’, ‘腰酸(허리가 시다)’ 등에서는 ‘몸이 불편하여 아프고 힘이 없다’는 의미로 나타난다. 이는 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가 기타 신체 부위의 아픔으로까지 확장된 의미에 해당한다. 이는 또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상태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예로 ‘心酸(마음이 쓰리다)’, ‘酸聲(슬픈 소리)’ 등이 있다. 이외에도 ‘窮酸(가난하면서 배운 티를 내다), 寒酸(가난하고 초라하다), 酸秀才(진부한 문인)’는 ‘학자나 문인들이 세상물정을 잘 몰라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지 못

하고 응색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미각어는 기본 의미 이외에도 신체나 감정의 상태의 표현뿐 아니라 여러 표현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3. 한·중 미각어 기본 의미 대조

이 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다섯 가지 미각어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 의미란 한 언어표현의 의미가 이를 실제로 지시하는 단어나 문장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고찰하고자 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의 기본 의미는 사전에 제시된 의미를 바탕으로 한다.

3.1. ‘시다/ 酸’의 기본 의미 대조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시다’와 ‘酸’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어대사전(2000)》,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 제시된 미각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어 ‘시다’의 기본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시다’의 기본 의미

사전	의미 항목
《표준국어대사전(1999)》	맛이 식초나 설익은 살구와 같다.
《국어대사전(2000)》	음식물이 식초나 설익은 살구맛과 같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음식의 맛이) 식초와 맛과 같다.

위와 같이 사전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시다’의 기본 의미는 모두 ‘음식물의 맛이 식초나 설익은 살구와 같다’로 서로 비슷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다’의 기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미각어 ‘시다’의 기본 의미: 음식물의 맛이 식초나 설익은 살구와 같다.

한편, 중국어 미각어인 ‘酸’의 기본 의미를 《現代漢語辭典(2005)》, 《古今漢語詞典(2002)》,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에 근거하여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酸’의 기본 의미

사전	의미 항목
《現代漢語辭典(2005)》	像醋的氣味和味道.(식초와 비슷한 냄새나 맛)
《古今漢語詞典(2002)》	像醋的氣味或味道.(식초와 비슷한 냄새나 맛)
《現代漢語規範詞典(2004)》	像醋的氣味或味道.(식초와 비슷한 냄새나 맛)

이와 같은 중국어 사전들에서의 ‘酸’에 대한 기본 의미는 모두 ‘식초와 비슷한 냄새나 맛’으로 같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酸’의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2) 중국어 미각어 ‘酸’의 기본 의미: 像醋的氣味和味道.
(식초와 비슷한 냄새나 맛.)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시다/ 酸’의 기본 의미를 대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시다’와 ‘酸’의 기본 의미 대조

한국어 ‘시다’의 기본 의미	중국어 ‘酸’의 기본 의미
음식물의 맛이 식초나 설익은 살구와 같다.	像醋的氣味和味道. (식초와 비슷한 냄새나 맛.)

이상으로 제시한 한국어 ‘시다’와 중국어 ‘酸’의 기본 의미는 사전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위 <표 4>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음식은 모두 식초이지만 한국에서는 설익은 살구의 맛으로 ‘시다’의 기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서는 설익은 살구의 맛은 ‘뽕다’로 표현한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맛을 나타내는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달다/ 甜’의 기본 의미 대조

한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한국어의 ‘달다’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달다’의 기본 의미

사전	의미 항목
《표준국어대사전(1999)》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국어대사전(2000)》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음식이)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표 5>의 ‘달다’에 대한 기본 의미는 한국어 사전들에서 모두 같게 표현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를 한 ‘달다’의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다.

(3) 한국어 미각어 ‘달다’의 기본 의미: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한편, 중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甜’의 기본 의미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甜’의 기본 의미

사전	의미 항목
《現代漢語辭典(2005)》	像糖或蜜的味道.(설탕이나 꿀의 맛과 같다.)
《古今漢語詞典(2002)》	味甘, 像糖或蜜的味道. (설탕이나 꿀의 맛과 같다.)

《現代漢語規範詞典(2004)》	像糖或蜜的滋味.(설탕이나 꿀의 맛과 같다.)
------------------	--------------------------

<표 6>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甜’에 대한 기본 의미는 세 사전 모두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甜’의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다.

(4) 중국어 미각어 ‘酸’의 기본 의미: 像糖或蜜的味道.(설탕이나 꿀의 맛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달다/ 甜’의 기본 의미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달다’와 ‘甜’의 기본 의미 대조

한국어 ‘달다’의 기본 의미	중국어 ‘甜’의 기본 의미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像糖或蜜的味道.(설탕이나 꿀의 맛과 같다.)

이와 같은 의미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 ‘달다’와 중국어 ‘甜’의 기본 의미는 모두 같게 표현되었다. 이는 ‘달다’와 ‘甜’의 대표적인 음식인 꿀이나 설탕의 맛은 누구에게나 단맛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3.3. ‘쓰다/ 苦’의 기본 의미 대조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쓰다’와 ‘苦’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쓰다’의 기본 의미는 아래와 같다.

<표 8> ‘쓰다’의 기본 의미

사전	의미 항목
《표준국어대사전(1999)》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소태, 씬바귀의 맛과

	같다.
《국어대사전(2000)》	맛이 소태나 쓸개의 맛과 같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음식이) 소태나 쓸개의 맛과 같다.

위의 표를 보면 《국어대사전(2000)》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서 제시된 ‘쓰다’에 대한 기본 의미는 같지만,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제시한 ‘쓰다’의 경우에는 쓴맛을 대표하는 음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전적 기본 의미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쓰다’의 기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한국어 미각어 ‘쓰다’의 기본 의미: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소태나 쓸개의 맛과 같다.

한편, 중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중국어 미각어 ‘苦’의 기본 의미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苦’의 기본 의미

사전	의미 항목
《現代漢語辭典(2005)》	像膽汁或黃連的味道, 與‘甜’相對. (담즙이나 황련과 같은 맛, ‘달다’와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古今漢語詞典(2002)》	가. 苦菜, 茶.(쓴맛으로 느껴지는 야채, 차) 나. 味道苦.(맛이 쓰다.)
《現代漢語規範詞典(2004)》	像苦瓜或黃連的味道, 與甜相對. (여주나 황련과 같은 맛, ‘달다’와 반대 의미를 가진다.)

위의 기본 의미들 가운데 《古今漢語詞典(2002)》의 의미 항목인 ‘가’는 ‘苦菜, 茶(쓴맛이 있는 채소, 차)’, ‘나’의 ‘味道苦 (맛이 쓰다)’는 《現代漢語辭典(2005)》

의 ‘像膽汁或黃連的味道, 與‘甜’相對 (담즙이나 황련과 같은 맛, ‘달다’와 반대 의미를 가진다)’에 통합적으로 제시되었고,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像苦瓜或黃連的味道, 與甜相對(여주나 황련과 같은 맛, ‘달다’와 반대 의미를 가진다)’와 유사한 의미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쓴’의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다.

(6) 중국어 미각어 ‘쓴’의 기본 의미: 像苦瓜或黃連的味道, 與甜相對.

(여주나 황련과 같은 맛, ‘달다’와 반대 의미를 지닌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인 ‘쓰다/ 쓴’의 기본 의미를 대조하면 아래와 같다.

<표 10> ‘쓰다’와 ‘쓴’의 기본 의미 대조

한국어 ‘쓰다’의 기본 의미	중국어 ‘쓴’의 기본 의미
음식은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소태나 쓸개의 맛과 같다.	像苦瓜或黃連的味道, 與甜相對. (여주나 황련과 같은 맛, ‘달다’와 반대 의미를 가진다.)

한국어 ‘쓰다’와 중국어 ‘쓴’의 기본 의미는 서로 같지만 쓴맛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다르다. 한국어에서는 한약이나 소태나 쓸개가 쓴맛을 표현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야채 종류인 여주나 한약 종류인 황련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 ‘쓴’은 ‘甜’과 반대의 의미라고 제시되었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점이 언급되지 않았다.

3.4. '맵다/ 辣'의 기본 의미 대조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맵다’와 ‘辣’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맵다’의 기본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 ‘맵다’의 기본 의미

사전	의미 항목
《표준국어대사전(1999)》	고추, 겨자와 같이 맛이 알알하다.
《국어대사전(2000)》	혀가 알알한 맛으로 느껴진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음식이) 고추, 겨자 따위의 맛과 같이 혀가 알알하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전에서 제시된 ‘맵다’에 대한 기본 의미는 모두 동일하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매운맛의 대표적인 음식인 ‘고추, 겨자’를 함께 나열하여 설명했다. 이상과 같은 사전의 정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맵다’의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다.

(7) 한국어 미각어 ‘맵다’의 기본 의미: (음식이) 고추, 겨자 따위의 맛과 같이 혀가 알알하다.

한편, 중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중국어 미각어 ‘辣’의 기본 의미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辣’의 기본 의미

사전	의미 항목
《現代漢語辭典(2005)》	像姜, 蒜, 辣椒等有刺激性的味道. (생강, 마늘, 고추 등과 같은 자극적인 맛.)
《古今漢語詞典(2002)》	像姜, 蒜, 辣椒等的有刺激性的味道. (생강, 마늘, 고추 등과 같은 자극적인 맛.)
《現代漢語規範詞典(2004)》	辣椒蒜姜等具有的有一定刺激性的味道. (생강, 마늘, 고추 등과 같은 자극적인 맛.)

위의 표를 보면 ‘辣’의 기본 의미는 모두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辣’의 기본 의미는 아래와 같다.

- (8) 중국어 미각어 ‘辣’의 기본 의미: 像姜, 蒜, 辣椒等的有刺激性的味道.
(생강, 마늘, 고추 등과 같은 자극적인 맛.)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인 ‘맵다/ 辣’의 기본 의미를 대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맵다’와 ‘辣’의 기본 의미 대조

한국어 ‘맵다’의 기본 의미	중국어 ‘辣’의 기본 의미
(음식이) 고추, 겨자 따위의 맛과 같이 혀가 알알하다.	像姜, 蒜, 辣椒等的有刺激性的味道. (생강, 마늘, 고추 등과 같은 자극적인 맛.)

위의 <표 13>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알알한 맛을 ‘맵다’를 표현하고, 중국어에서는 자극적인 맛을 ‘辣’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알알하다’는 “맵거나 독하여 혀끝이 약간 아리고 쏘는 느낌이 있다.”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극적’이라는 의미는 “자극하는 성질이 있는. 또는 그런 것.”이라 제시되어 있다. 곧, ‘알알하다’와 ‘자극적’이라는 의미는 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바, ‘맵다’와 ‘辣’는 대표하는 음식의 종류와 표현이 다를 뿐, 그 기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다.

3.5. ‘짜다/ 鹹’ 의미 대조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짜다’와 ‘鹹’의 기본 의미를 대조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의 ‘짜다’의 기본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짜다’의 기본 의미

사전	의미 항목
《표준국어대사전(1999)》	소금과 같은 맛이 있다.
《국어대사전(2000)》	(무엇의 맛이) 소금 맛과 같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음식의 맛이) 소금 맛과 같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짜다’의 기본 의미가 모두 같다. 이를 바탕으로 한 ‘짜다’의 기본 의미는 아래와 같다.

(9) 한국어 미각어 ‘짜다’의 기본 의미: (음식의 맛이) 소금 맛과 같다.

한편, 중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중국어 미각어 ‘鹹’의 기본 의미는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5> ‘鹹’의 기본 의미

사전	의미 항목
《現代漢語辭典(2005)》	像鹽的味道. (소금과 같은 맛.)
《古今漢語詞典(2002)》	鹽的味道. (소금과 같은 맛.)
《現代漢語規範詞典(2004)》	像鹽那樣的味道. (소금과 같은 맛.)

위의 표를 통해 사전들에서 제시된 ‘鹹’의 기본 의미는 모두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鹹’의 기본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0) 중국어 미각어 ‘鹹’의 기본 의미: 鹽的味道.(소금과 같은 맛.)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인 ‘짜다/ 鹹’의 기본 의미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짜다’와 ‘鹹’의 기본 의미 대조

한국어 미각어 ‘짜다’의 기본 의미	중국어 미각어 ‘鹹’의 기본 의미
(음식의 맛이) 소금 맛과 같다.	鹽的味道. (소금과 같은 맛)

한국어 ‘짜다’와 중국어 ‘鹹’의 기본 의미를 한국과 중국의 각 사전에 근거하여 대조한 결과, 모두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미각어 ‘짜다’와 ‘鹹’은 두 나라의 사전에서 모두 소금의 맛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는 곧, ‘달다/ 甜’과 마찬가지로 소금은 누구에게나 짠맛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한 · 중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이 장에서는 두 언어의 미각어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어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 양상과 그 표현을 대조하고자 한다. 2.2.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각어에서의 은유는 구체적인 미각 경험으로 추상적인 사물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사전에서 제시된 ‘시다/ 酸, 달다/ 甜, 쓰다/ 苦, 맵다/ 辣, 짜다/ 鹹’의 은유적 의미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SJ-RIKS Corpus’와 ‘CCL말뭉치검색시스템(CCL語料庫檢索系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1. ‘시다/ 酸’의 은유적 의미 대조

국가와 인종에 상관없이 인간의 미각 계통은 같다. 그렇기에 혀로 감지하는 맛에 대한 느낌도 같아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에서도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미각어는 그 자체의 의미가 다른 감각의 영역으로 확장될 때, 언어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먼저 ‘시다/ 酸’에서 나타나는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대조하기로 한다.

우선은 한 · 중의 ‘시다’와 ‘酸’의 은유적 의미에 대하여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사전들에서 제시된 한국어 미각어 ‘시다’의 은유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시다’의 은유적 의미

사전	의미 항목
《표준국어대사전(1999)》	가. 【…이】 ㄱ. 뼈마디 따위가 뼈었을 때처럼 거북하게 저리다. ㄴ. 강한 빛을 받아 눈이 부시어 슴벅스름 짙어지는 듯하다.
	가. 뼈마디나 또는 설익은 사과를 먹었을 때의

《국어대사전(2000)》	이뿌리처럼 거북하게 자릿자릿하다. 나. 하는 짓이 같잖거나 비위에 거슬리다. 다. 눈이 센빛을 받아 슴벅스름 찢리는 듯하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눈이) 강한 빛을 받아 슴벅스름 찢리는 듯하다.

사전들에서 제시하는 이와 같은 ‘시다’의 의미 가운데 ‘강한 빛을 받아 눈이 부시어 슴벅스름 찢리는 듯하다’는 의미는 세 사전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국어대사전(2000)》에서는 ‘관절이 거북하거나 시큰시큰 아픈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였다. 또한 ‘하는 짓이 같잖거나 비위에 거슬리다’는 의미는 《국어대사전(2000)》에서만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다’의 은유적 의미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한국어 미각어 ‘시다’의 은유적 의미

- 가. 강한 빛을 받아 눈이 부시어 슴벅스름 찢리는 듯하다.
- 나. 뼈마디나 또는 설익은 사과를 먹었을 때의 이뿌리처럼 거북하게 저리다.
- 다. 하는 짓이 같잖거나 비위에 거슬리다.

한편, 《現代漢語辭典(2005)》, 《古今漢語詞典(2002)》, 《現代漢語規範詞典(2004)》 등의 사전에서 제시하는 중국어 미각어 ‘酸’의 은유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酸’의 은유적 의미

사전	의미 항목
	가. 電解質離電時所產生的陽離子全部是氫離子的化合物. 如鹽酸, 硝酸等. (전해질이 화학적인 현상을 발생시킬 때

<p>《現代漢語辭典(2005)》</p>	<p>나오는 수소 이온에 해당하는 양이온. 예를 들면 염산, 질산 등.)</p> <p>나. 悲痛, 傷心.(슬프고 통탄스럽다)</p> <p>다. 迂腐.(多用於譏諷文人) (진부한 문인에 대한 풍자)</p> <p>라. 因疲勞或疾病引起的微痛而無力的感覺. (피로나 질병으로 약간 아프고 무력한 상태)</p>
<p>《古今漢語詞典(2002)》</p>	<p>가. 悲痛, 傷心.(슬프고 통탄스럽다)</p> <p>나. 因疲勞或疾病引起的微痛而無力的感覺. (피로나 질병으로 약간 아프고 무력한 상태)</p> <p>다. 迂腐, 譏諷文人迂腐. (진부한 문인에 대한 풍자)</p> <p>라. 一類化學物質.(화학 물질 따위)</p>
<p>《現代漢語規範詞典(2004)》</p>	<p>가. 悲痛, 難過.(슬프고 통탄스럽다)</p> <p>나. 因為疲勞或生病而微痛乏力. (피로나 질병으로 약간 아프고 무력한 상태)</p> <p>다. 迂腐.(진부한 문인에 대한 풍자)</p> <p>라. 能在水溶液中電離產生氫離子的化合物的統稱, 這類物質的水溶液有酸味. (수용액의 전해질이 전리 현상을 발생시킬 때 수소 이온이 나올 수 있는 화학물질의 총칭. 이러한 화학물질의 수용액은 신맛이 난다.)</p>

<표 18>에 따르면 중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酸’에 대한 은유적 의미는 모두 비슷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現代漢語辭典(2005)》의 ‘가’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라’는 한국어의 은유적 의미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酸’의 은유적 의미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2) 중국어 미각어 ‘酸’의 은유적 의미

- 가. 悲痛, 傷心.(슬프고 통탄스럽다)
- 나. 迂腐 (多用於譏諷文人).(진부한 문인에 대한 풍자)
- 다. 因疲勞或疾病引起的微痛而無力的感覺.
(피로나 질병으로 약간 아프고 무력한 상태)

한국어와 중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이상과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어 미각어 ‘시다’와 중국어 미각어 ‘酸’의 은유적 의미를 대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9> ‘시다’ 기준 ‘酸’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의미 항목	의미	‘酸’과의 의미 대조
가 ¹⁰⁾	강한 빛을 받아 눈이 부시어 습벅습벅 찢리는 듯하다.	× ¹¹⁾
나 ¹²⁾	뼈마디나 또는 설익은 사과를 먹었을 때의 이뿌리처럼 거북하게 저리다.	□ ¹³⁾
다 ¹⁴⁾	하는 짓이 같잖거나 비위에 거슬리다.	×

<표 20> ‘酸’ 기준 ‘시다’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의미 항목	의미	‘시다’와의 의미 대조
가 ¹⁵⁾	悲痛, 傷心.(슬프고 통탄스럽다)	×

10) <표 19>의 ‘가’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의미 항목 ‘가-ㄴ’에 해당한다.

11) 부호 ‘×’는 동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12) <표 19>의 ‘나’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가-ㄱ’과 《국어대사전(2000)》의 ‘가’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13) 부호 ‘□’는 유사함을 나타낸다.

14) <표 19>의 ‘다’는 《국어대사전(2000)》의 의미 항목 ‘나’에 해당한다.

나16)	迂腐 (多用於譏諷文人).(진부한 문인에 대한 풍자)	×
다17)	因疲勞或疾病引起的微痛而無力的感覺. (피로나 질병으로 약간 아프고 무력한 상태)	□

<표 19>와 <표 2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먼저 사전에 제시된 의미 항목을 통하여 ‘시다’와 ‘酸’의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9>는 한국어 ‘시다’의 은유적 의미를 기준으로 대조하였고 <표 20>은 중국어 ‘酸’의 은유적 의미를 기준으로 대조하였다.

위의 두 표를 살펴보면, 은유적 의미에서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의미 목록이 존재한다. <표 19>의 ‘나’는 <표 20>의 ‘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표 19>의 ‘가’와 ‘다’의 경우, 중국어 미각어인 ‘酸’에는 대응되는 표현이나 의미가 없다. 한편, <표 20>의 ‘가’와 ‘나’는 한국어 ‘시다’에 대응되지 않는다.

다음은 <표 19>와 <표 20> 사전에서 제시된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 차이점과 실제 언어 생활에서 새로 나온 은유적 의미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한국과 중국의 미각어 ‘시다/ 酸’에 관한 모든 은유적 의미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대조 분석하면, 먼저, ‘시다/ 酸’에 나타나는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은, 한국과 중국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나 맥락에서 쓰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다/ 酸’은 실제 언어 생활에서 후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냄새를 표현하는 데에 쓰인다. 대부분 ‘땀 냄새, 썩은 음식 냄새 등의 좋지 않은 냄새’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3) ‘시다/ 酸’에서 나타나는 후각과 관련한 은유적 의미

가. 몸에서 시큼한 땀 냄새가 났다.

나. 이제는 가동되지 않는 냉장고 속의 음식물이 당장 시큼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15) <표 20>의 ‘가’는 《現代漢語辭典(2005)》의 ‘나’, 《古今漢語詞典(2002)》의 ‘가’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가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16) <표 20>의 ‘나’는 《現代漢語辭典(2005)》의 ‘다’, 《古今漢語詞典(2002)》의 ‘다’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다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17) <표 20>의 ‘다’는 《現代漢語辭典(2005)》의 ‘라’, 《古今漢語詞典(2002)》의 ‘나’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나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다. 在高溫和刺鼻的酸味中, 宋燕在醋缸邊一幹就是10年.

(덥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환경에서 송연은 10년 동안 식초 향아리 옆에서 일을 하고 있다.)

라. 新鮮肉具有正常的肉腥味. 如有農藥味, 酸味或其他異味的肉都是不正常的.

(신선한 고기는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만약 고기가 농약 냄새나 시큼한 냄새, 혹은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상한 것이다.)

(3가)와 (3나)는 한국어 용례로 ‘ 좋지 않은 땀 냄새’와, ‘ 짙은 음식 냄새’를 ‘ 시다’로 표현한 것이다. (3다), (3라)는 중국어 용례, 각각 ‘ 코를 찌르는 식초 냄새’, ‘ 상한 고기의 냄새’를 ‘ 酸’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에 나타나는 미각어는 후각어로서의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표 19>의 ‘ 나’와 <표 20>의 ‘ 다’에서, ‘ 시다/ 酸’은 촉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 뼈마디가 거북하게 저리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곧 신체의 일부분이 아프거나 무력한 상태를 나타내며, 신체 어휘¹⁸⁾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4) ‘ 시다/ 酸’에서 나타나는 촉각과 관련한 은유적 의미

가. 신 포도를 많이 먹어서 이빨이 시다.

나. 그녀는 발목이 시다.

다. 햇살이 비쳐 눈이 시다.

라. 눈이 시어 되감길 정도로 강렬한 불빛을 느끼고 일어서며, 이거 아주 병 주고 약 주고 하는구나, 생각하며 쓰게 웃었다.

마. 一天忙下來經常是腰酸腿疼, 覺得腰都彎不下去了.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허리를 굽힐 수 없을 정도로 항상 허리가 시큰거리고 다리가 아프다.)

바. 渾身肌肉繃得酸痛, 能泡在熱水裏閉上眼睛松弛一下, 簡直是一種超級享受.

(온몸의 근육이 시큰시큰 쭈시고 아플 때는 눈을 지긋이 감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 我整整哭了一夜, 淚水把眼睛浸得酸痛.(나는 밤새도록 울어서 눈이 쭈신다.)

아. 不幾天, 手上起泡了, 腰腿酸痛了, 肩膀也紅腫了.

(며칠 후에, 손에 수포가 생겼고, 허리와 다리가 모두 시큰거리어 아팠고, 어깨도 부었다.)

18) 신체 어휘는 눈, 손, 코, 허리 등을 가리킨다.

(4가~라)는 한국어 용례에 해당하며, (4마~아)는 중국어 용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례를 가운데 (4가)의 이, (4나)의 발목, (4다), (4라)와 (4사)의 눈, (4마)의 허리, (4바)의 근육, (4아)의 허리와 다리와 같은 신체 부위가 아프거나 무력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위의 용례에서 한국과 중국의 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이, 발목, 눈 등의 신체 어휘가 뼈마디를 뼈였을 때처럼 거북하게 저리다는 뜻으로 표현된 것이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신체 어휘와 결합하여 ‘슬프다, 상심하다’라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5) ‘시다/ 酸’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와 관련한 은유적 의미

가. 외할머니를 설득하면서 그의 코도 시어왔다.

나. 그는 눈가가 시어오자 소리 없이 문으로 걸어 나갔다.

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그녀는 마음이 시디시어 와 눈물이 울컥 솟아올랐다.

라. 高先生知道女兒回心轉意了, 他心裏倒酸漬漬的很不好受.

(고 씨는 딸의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시어서 슬퍼졌다.)

마. 他心裏一陣酸痛, 又哭了.(그의 마음이 시어서 또 울기 시작한다.)

바. 她的眼睛一酸, 不能繼續說下去, 揮手使張鼎走開.

(그녀의 눈가가 시어서 말을 잇지 못함과 동시에 장등에게 어서 가라며 손을 흔든다.)

(5가~다)는 한국어 용례이며, (5라~바)는 중국어 용례이다. (5가), (5나), (5바)의 ‘코도 시다’, ‘눈가가 시다’는 슬퍼서 눈물이 나올 만큼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5다), (5라), (5마)의 ‘마음이 시다’는 표현은 슬픔이나 걱정 따위로 상심하였음을 나타낸다.

고창운(2006)에 따르면, 한국어는 신맛에 대한 표현이 가장 풍부하고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천시권(1982)의 분류 또한 그에 상응하는 데 반면에, 정재운(1992)의 분류 결과는 상응하지 않았다. 신맛에 대한 표현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경험이 많거나 그런 속성을 지닌 대상이 풍부하다는 뜻인데 과연 ‘시다’가 어떤 어휘들과 자주 공기하는지 그리고 한국어 사용자들은 어떤 어휘를 연상했는지 알아보고, 그 개념적 구조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이경수 2012: 92).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시다/ 酸’은 ‘어떠한 대상이 화자의 마음에 들지 않

거나 하는 것이 같잖거나 비위에 거슬림'을 나타내는데, 그 표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는 것이 같잖거나 비위에 거슬리다'의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어의 '시다'에만 해당하는 의미이다. 한편, 중국어 '酸'은 이러한 의미가 사전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 언어 생활에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령, 한국어에서 '눈/ 눈썹이 시다, 콧등이 시다'는 '아니꼽다, 거슬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酸了臉'는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두 나라의 신맛 미각어는 실제 사용 양상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가. 그의 잘난 체하는 태도에 눈이 시어 못 보겠다.

나. 그 꼴은 정말 눈썹이 시어 볼 수 없었다.

다. 當問到他的痛苦的經歷時，他酸了臉。

(그의 슬픈 사연을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라. 我越是逼問他，他就越堅持說沒有，反而常常酸了臉。

(내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강요할 때마다 그는 대답을 거부했다. 도리어 그는 항상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다'는 그 의미가 대체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맛의 관점에서, 개인에 따라 선호하는 맛에 대한 취향이 다르므로 신맛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 특성이 전이된 의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6가), (6나)의 '시다'는 상대의 행위에 대한 불만이나 못마땅함을 나타낸다. 행동이 눈에 거슬리거나 불쾌감이 들 때 나타나는 인식으로 얌체¹⁹⁾ 같은 행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잘난 체를 하는 등의 행위가 화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6다), (6라)를 보면 중국어의 '酸'은 동사로도 사용된다. 형용사인 '酸'이 동사로 사용되면, 화가 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한·중 미각어 '시다/ 酸'의 은유적 의미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 항목은 많지 않지만, 중국어의 의미항목은 비교적 많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표 20>의 '나'를 참조하면 중국어의 '酸'은 '언어나 행동이 진부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19)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제시하는 '얌체'의 의미는 '얌치가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권희정(2008)에서는 ‘酸’이 대부분 인물 어휘(你, 他, 秀才 등), 신체 어휘, 언어 어휘(說話, 語, 話 등)와 결합하여 쓰인다고 보고 있다.

- (7) 가. 中國再也不需要這種酸酸的秀才了.
 (중국에서 이런 진부한 수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나. 他就喜歡賣弄, 酸溜溜地來兩句之乎者也.
 (그는 뽐내는 것만 좋아해서 특하면 케케묵은 진부한 지식을 자랑한다.)
 다. 瞧他那搖頭晃腦的樣子, 真酸的難受.
 (그 사람이 머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불쾌하다.)
 라. 這個人說話酸酸的, 一點也不開竅.
 (이 사람의 말은 귀에 거슬려서 정말 불편하다.)
 마. 為了借錢, 她聽了不少酸話.
 (돈을 빌리기 위해 그녀는 각박한 말을 많이 들었다.)
 바. 我初到鄉下, 帶著一股知識分子的窮酸味.
 (시골에 처음 왔을 때, 내 모습은 진부한 지식인과 같았다.)

(7가)에서 ‘酸酸的(진부하다)’는 ‘秀才(수재)’를 표현하여 ‘秀才’의 진부한 모습을 표현한다. (7나)에서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풍자해서 ‘酸溜溜’로 표현하였다. (7다)는 어떤 모습이 보기 불편한 상황에서 ‘真酸’으로 표현하였다. (7라), (7마)의 신맛은 청각으로 전이되어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7바)의 ‘窮酸味’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가난하고 시큼한 냄새’라는 뜻이지만, 풍자의 상황에서는 ‘酸’이 지식인의 진부한 모습을 은유적 의미로 표현하였다.

둘째, 중국어에서 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남녀 간의 애정으로 인한 질투(嫉妒)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끼리의 질투의 감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어에서 ‘酸’의 이러한 은유적 의미는 대부분 ‘吃醋’의 형태로 나타난다. ‘吃醋(식초를 먹다)’와 ‘嫉妒(질투)’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두 ‘酸’의 은유적 의미로 보일 수 있다²⁰⁾.

- (8) 가. 看到男朋友與別的女人說說笑笑, 她心裏酸酸的, 很不爽.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질투심으로 마음이 불편하다.)
 나. 引起一部分人酸溜溜的嫉妒, 然後妳一拳我一腳地糟蹋, 幾乎是不可避免的.

20) 牛小艾(2012)에서는 ‘吃醋’와 ‘嫉妒’는 같은 의미로 보인다는 것을 정의했다.

(몇몇 사람들의 시지근한 질투를 사게 되어 질투심을 서로 주고받게 되면 서로 짓밟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 他自己心地骯臟，還認為別人無恥；他自己爭風吃醋，還把別人看成“眼中釘，肉中刺”。

(그는 항상 질투하여 다투고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듯,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서 다른 사람은 모두 자신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였다.)

라. 別擔心，就坦然地說妳是我的前妻，我那位不會吃醋的。

(걱정하지 마, 편하게 네가 내 전처라고 해, 내 짐사람은 질투하지 않을 거야.)

(8가)에서 ‘酸酸的’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여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이다. (8나)의 ‘酸溜溜’는 사람 간의 질투심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8다)에서는 ‘吃醋’가 다른 사람과 질투하여 다투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8라)의 ‘吃醋’는 ‘식초를 먹다’라는 뜻으로, 애정으로 인한 질투의 감정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질투’의 의미를 지닌 ‘嫉妬’와 같은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어에서 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슬픔의 의미가 있다. 대부분 ‘酸楚, 辛酸, 心酸’의 형태로 사용한다.

(9) 가. 看著孩子因肚子餓而哭了許久才睡的樣子，真讓人感到十分酸楚。

(아이가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잠든 모습을 보면 정말 애처롭다.)

나. 打工仔的辛酸事。(삿일꾼의 슬픈 이야기.)

다. 等我將他的那包鋪蓋打開一看，可真令人心酸啊!

(내가 그의 짐 가방을 열어봤을 때, 정말 애처로웠어!)

(9가)의 ‘酸楚’는 아이가 배가 고파 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좋지 않아 슬퍼진 심리 상태를 나타냈다. (9나)의 ‘辛酸’의 ‘辛’과 ‘酸’은 ‘맵고 시다’는 의미를 지닌 복합 미각 형용사로서, ‘슬프다, 상심하다’의 의미를 표현한다. 여기에서는 삿일꾼의 힘겨운 생활에 나타나는 슬픔의 감정을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9다)의 ‘心酸’은 ‘그’의 짐 가방에서 ‘그’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애처로움을 느꼈다는 의미한다.

넷째, 중국어에서 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처지가 어렵거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酸’을 단독형으로 사용하거나, ‘寒酸’의 형태

로 사용하는데 이는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

- (10) 가. 看得出來, 那些地主婆娘和地主媳婦, 故意裝著一副寒酸相給別人看.
 (그 부잣집 사모님과 며느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궁상스러운 척을 한다.)
- 나. 今日材發身發, 肌膚充悅, 容彩光澤, 絕無向來枯瘠之容, 寒酸之氣.
 (오늘 몸 상태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 우울한 느낌과 초라한 기색이 없다.)
- 다. 要是穿得太寒酸, 也會被人認為這家公司不賺錢, 職員工資太少, 而買不起好服裝.
 (만약 질이 너무 나쁜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은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던 회사가 잘 안되고 직원도 적어서 좋은 옷을 못 산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10)은 모두 ‘寒酸’의 형태로 사용하였는데, (10가)에서는 부잣집의 사람이 일부러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10나)에서는 초라한 기색을, (10다)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다섯째, 중국어의 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느끼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 한국어는 대응되는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 느끼하는 의미의 중국어 미각어는 대부분은 인물 어휘, 언어 어휘와 결합한다.

- (11) 가. 一對男女, 相互依偎, 酸的不得了.
 (그 커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느끼하다.)
- 나. 妳看那對情侶酸酸的樣子, 真是有傷風化.
 (저 커플의 느끼한 모습을 보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다. 那個女生用酸酸的語氣和男朋友說甜蜜的話.
 (그녀가 애교를 부리며 남자친구와 달콤한 말을 주고받았다.)

(11)에서 ‘酸’은 어떤 사람의 경박하거나 위선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혐오스럽거나 거북한 느낌을 받을 때 사용되므로 새로운 의미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1가), (11나)는 커플의 과한 애정 행각을 보고 좋지 않다는 느낌을 나타낸다. (11다)의 ‘酸酸的’는 언어 어휘와 결합하여 여자가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여섯째, 중국어에서 ‘酸’는 시원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酸’는 ‘這酸爽’의 형태로 나타난다.

- (12) 가. 冷面的味道絕了, 這酸爽.(냉면이 끝내줄 정도로 정말 시원하고 맛있다.)
 나. 兩天沒睡了, 這酸爽.
 (이틀 동안 잠을 못 자서 이제는 진짜 넋을 잃을 정도이다.)

(12)는 모두 ‘這酸爽’²¹⁾의 형태를 사용하였다. (12가)에서는 냉면의 맛이 정말 시원하다는 표현이고, (12나)는 본래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다’를 의미한다. (12)에 사용된 ‘這酸爽’는 2014년도의 유행어로 반어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예상밖’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4.2. ‘달다/ 甜’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이 절에서는 한국어 미각어 ‘달다’와 중국어 미각어 ‘甜’의 은유적 의미를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사전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미각어 ‘달다’의 은유적 의미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1> ‘달다’의 은유적 의미

사전	의미 항목
《표준국어대사전(1999)》	가. 입맛이 당기도록 맛이 있다. 나. 흡족하여 기분이 좋다. 다. [주로 ‘달게’ 형태로 쓰여] 마땅하여 기쁘다.
《국어대사전(2000)》	가. 입맛이 당기어 아주 맛있다. 나. 기분이 좋거나 마음에 넉넉하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가. [주로 ‘달게’의 형태로 쓰여] (무엇이) 마땅하여 기쁘다. 나. (음식의 맛이) 입에 당기도록 좋다. 다. (일이) 마음에 만족스러워 기분이 좋다.

21) ‘這酸爽’의 출처는 중국의 라면 홍보 광고어에 해당한다. 광고에서 ‘這酸爽’은 라면의 맛이 깊고 좋음을 나타낸다. 그 후, 이 표현은 유행어로 등장하게 되었고, ‘시원한 느낌’ 혹은 약한 강도의 반어적 의미를 나타낸다.

<표 21>를 살펴보면, ‘달다’의 은유적 의미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나’, 《국어대사전(2000)》의 ‘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다’는 모두 ‘기분이 좋다’를 의미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다’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가’는 ‘마땅하여 기쁘다’를, 《국어대사전(2000)》의 ‘나’는 ‘마음에 넉넉하다’로, 의미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달다’의 은유적 의미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3) 한국어 미각어 ‘달다’의 은유적 의미

- 가. (음식의 맛이) 입에 당기도록 맛있다.
- 나. [주로 ‘달게’의 형태로 쓰여] (무엇이) 마땅하여 기쁘다.
- 다. [주로 ‘달게’의 형태로 쓰여] (일이) 마음에 만족스러워 기분이 좋다.

한편, 중국어 미각어 ‘甜’의 은유적 의미 중국어 사전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甜’의 은유적 의미

사전	의미 항목
《現代漢語辭典(2005)》	形容愉快, 舒服.(기쁘고 행복하다.)
《古今漢語詞典(2002)》	가. 美好, 幸福.(아름답고 행복하다.) 나. 睡得酣暢舒服.(잠이 잘 들다.)
《現代漢語規範詞典(2004)》	美好, 舒適, 令人愉快. (아름답고 편해서 유쾌한 느낌.)

<표 22>에 따르면, 《現代漢語辭典(2005)》에 제시된 의미 항목, 《古今漢語詞典(2002)》의 ‘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에 제시된 의미 항목은 모두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유쾌한 느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중국어 사전에서 제시한 ‘甜’의 의미는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古今漢語詞典(2002)》의 ‘나. 잠이 잘 들다’는 《現代漢語辭典(2005)》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사전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甜’의 은유적

의미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4) 중국어 미각어 ‘甜’의 은유적 의미

- 가. 美好, 舒這, 幸福, 令人愉快.(아름답고 편하고 만족스러워 유쾌한 느낌.)
- 나. 睡得酣暢舒服.(잠이 잘 들다.)

한국어와 중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이상과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어 미각어 ‘달다’와 중국어 미각어 ‘甜’의 은유적 의미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달다’ 기준 ‘甜’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의미 항목	의미	‘甜’과의 의미 대조
가 ²²⁾	(음식의 맛이) 입에 당기도록 맛있다.	×
나 ²³⁾	[주로 ‘달게’의 형태로 쓰여] (무엇이) 마땅하여 기쁘다.	×
다 ²⁴⁾	[주로 ‘달게’의 형태로 쓰여] (일이) 마음에 만족스러워 기분이 좋다.	□

<표 24> ‘甜’ 기준 ‘달다’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의미 항목	의미	‘달다’와의 의미 대조
가 ²⁵⁾	美好, 舒這, 幸福, 令人愉快. (아름답고 편하고 만족스러워 유쾌한 느낌.)	□
나 ²⁶⁾	睡得酣暢舒服.(잠이 잘 들다.)	×

22) <표 23>의 ‘가’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가’, 《국어대사전(2000)》의 ‘가’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나’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23) <표 23>의 ‘나’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다’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가’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24) <표 23>의 ‘다’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나’, 《국어대사전(2000)》의 ‘나’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다’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표 23>은 한국어 ‘달다’의 사전에서 제시된 은유적 의미를 기준으로 중국어 ‘甜’과 대조하였고, <표 24>는 중국어인 ‘甜’의 사전에서 제시된 은유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국어인 ‘달다’와 대조하였다. 대조 결과, 은유적 의미에서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의미 항목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표 23>의 ‘다’는 <표 24>의 ‘가’와 모두 ‘만족스러워 유쾌한 느낌’을 표현하고 의미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표 23>의 ‘가’와 ‘나’는, 중국어 미각어 ‘甜’에 대응되는 의미가 없다. <표 24>의 ‘나’는 한국어 미각어 ‘달다’의 은유적 의미에 대응되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 ‘睡得酣暢舒服.(잠이 잘 들다)’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²⁷⁾

<표 23>, <표 24> 사전에서 제시된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 차이점과 실제 언어 생활에서 새로 나온 은유적 의미를 바탕으로, 다음으로는 한국어 미각어 ‘달다’와 중국어 미각어 ‘甜’의 은유적 의미 통합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의 측면에서 대조하고자 한다. 먼저, 한·중 미각어 ‘달다/甜’의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후각어로 의미가 확장되어 맛있고 향기로운 냄새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15) 가. 제과점의 훈훈하고 달콤한 냄새가 너무 좋다.

나. 애순이에게서는 언제나 달착지근한 단내가 났다.

다. 街上空氣清新. 還帶著一股甜甜的氣味.

(거리의 공기가 맑고 신선해서 가끔 달콤한 향기가 난다.)

라. 一種甜甜的氣味在四周彌漫, 我知道那是棗樹被雨水洗過後發出來的.

(달콤한 향기가 여기저기 자욱해서, 나는 대추나무가 비를 맞아서 나는 향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5가), (15나)는 한국어 용례이고, (15다), (15라)는 중국어 용례이다. (15가)에

25) <표 24>의 ‘가’는 《現代漢語辭典(2005)》의 의미 항목, 《古今漢語詞典(2002)》의 ‘가’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의미 항목이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26) <표 24>의 ‘나’는 《古今漢語詞典(2002)》의 의미 항목 ‘나’에 해당한다.

27) 용례: 삼십 분쯤 달게 자고 일어나서 그가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면 그녀도 같이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한국어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세한 설명은 용례 (13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서 ‘달콤하다’는 빵이나 과자의 맛있고 향기로운 냄새를 표현하고, (15나)는 ‘애순’의 몸에서 나는 맡기 좋은 냄새를 의미한다. (15다), (15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甜甜的’는 달콤한 향기를 표현한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청각어로 의미가 확장되어 감미로운 소리를 표현하는데, 즐거운 분위기와 유쾌한 느낌을 나타낸다.

- (16) 가. 그녀의 목소리도 덩달아 달착지근하게 흘러나왔다.
 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날밤을 달콤한 음악을 들으며 지내려고 한다.
 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듣기에 감미롭다.
 라. 她的聲音甜得像蜜.(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다.)
 마. 甜美的歌, 優美的舞, 把觀眾帶到一種至美的意境中去.
 (감미로운 선율과 우아한 춤은 관객들을 아름다움의 경지로 이끌었다.)
 바. 我半開的門外便傳來洛麗塔溫和甜美的笑聲.
 (나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로리타의 달콤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16가~다)는 한국어 용례에 해당하고, (16라~바)는 중국어 용례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단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16가), (16라)에서는 목소리 ‘聲音(목소리)’로, (16나), (16마)에서는 노래 소리와 선율, (16다), (16바)에서는 웃음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16)은 듣기에 아름답고 편안한 소리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단맛과 같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다.

셋째, <표 23>의 ‘다’와 <표 24>의 ‘가’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미각어 ‘달다/ 甜’은 행위나 상황에 전이되어 화자의 행복과 만족의 태도를 보인다.

- (17) 가. 삼십 분쯤 달게 자고 일어나서 그가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면 그녀도 같이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나. “그만하십시오!” 그녀는 목을 꼬며 웃는다. 그 웃음은 꿀처럼 달다.
 다. 신혼의 단꿈은 그야말로 남가일몽.
 라. 쓴 것이 다하면 반드시 단것이 온다는 말이지요.
 마. 這回憶是甜滋滋的, 他很少像昨天那麼快活, 痛快.
 (어제는 행복한 기억이 많아서, 그에게 어제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었다.)
 바. 這個農村小伙子運氣真好, 不但在大城市裏找到一份甜差, 還討到一位中意的姑娘.
 (이 총각은 운도 참 좋다. 구하기 어렵다던 좋은 직장도 쉽게 구하고 이상형의

여자도 만났다.)

사. 對“面的”司機來說，5公裏以下是“甜活兒”，7公裏以上是“苦活兒”。

(승합차 기사와 입장에서, 5킬로미터 이하일 때 힘을 적게 들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좋지만, 7킬로미터 이상일 때는 고생만 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아. 我暗自慶幸自己這回可真得了個甜差，眼界大開啊!

(나는 이번에 일을 하면서 견문도 크게 넓힐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장을 얻어 기쁘다!)

(17가~라)는 한국어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이고, (17마~아)는 중국어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이다. (17가)의 ‘달다’의 은유적 의미는 중국어 사전에서 제시하는 ‘甜’의 은유적 의미인 ‘形容睡得酣暢²⁸⁾’과 유사하다. (17나)에서 ‘웃음이 달다’는 사람이 기쁘고 만족스러울 때 얼굴을 활짝 퍼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다(이민 2011: 30). (17다)에서 ‘단꿈’은 행복한 꿈, 신혼에 대해서 소망하는 감정을 나타낸다. (17마)에서 ‘回憶甜滋滋的’는 ‘행복한 기억’이라는 의미로, 이 문장에서 ‘甜滋滋’는 ‘행복하고 유쾌감을 느낌’의 의미를 나타낸다. (17바)와 (17아)에서 나타나는 ‘甜差’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나타내며, ‘좋다, 만족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마찬가지로 (17라)에서 ‘단 것’은 ‘좋은 일, 행복한 일’이라는 의미이다. (17사)에서 ‘甜活兒’은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을 나타낸다. 문장 뒤 부분 나타나는 ‘苦活兒’과는 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넷째, 고통이 뒤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 혹은 그 대가를 불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나타낼 때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단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를 각각 ‘달게’, ‘心甘情願’나 ‘甘願’의 형태로 나타낸다. 중국어의 ‘心甘情願’는 억지가 아닌 진심으로 원하여 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 고통이나 손해 등의 희생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8) 가. 그리고 구속을 달게 받아 들였습니다.

나. 1시간의 모임이 끝난 뒤 업주들은 ‘미성년자 고용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

다. 정말 네 스스로 죄 값을 달게 한다.

28) ‘形容睡得酣暢’은 《古今漢語詞典(2002)》에서 제시되는 ‘甜’의미 항목인 ‘잠이 잘 들다’이다.

라. 為了中國農民過上好日子, 我心甘情願奉獻我的一切.

(중국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마. 他很不甘願有些顫抖地簽上自己的名字.

(그는 떨면서 사인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바. 為了病人, 凌鋒甘願犧牲自己.

(환자를 위해 룡봉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18가~다)는 한국어 용례에 해당하고, (18라~바)는 중국어 용례에 해당한다. (18가~다)의 ‘달다’는 ‘구속, 처벌, 짓값’ 등의 대가를 불만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고난, 처벌, 충고, 비난 등의 상황과 미각어 ‘달다’는 어휘적 차원에서 그 공통적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이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느끼거나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례의 상황 자체의 어휘적 의미와 미각적 의미의 상관성으로 보아 ‘쓰다’와 결합해야 표현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들 표현은 상황을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로서, 어떤 고통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참아내며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단맛에 대한 인간의 선호와 연계되어 ‘처벌 (고난, 충고, 비난 등)도 달게 여긴다/ 받는 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정수진 2005: 157). 중국어에서는 (18라~바)처럼 ‘心甘情願’나 ‘甘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문장에서 나타내는 ‘甘’은 ‘甜’와 뜻을 같이 한다²⁹⁾.

다음에는 한·중 미각어 ‘달다/ 甜’의 은유적 의미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한국어에만 나타나는 은유적 의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 23>의 ‘가’와 같이 한국어의 ‘달다’는 그 대상이 되는 음식의 맛이 좋음을 나타낸다. 한국어에서 단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입맛이 당기는 맛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어의 단맛을 나타내는 미각어에서는 대응되는 은유적 의미를 찾을 수 없다.

(19) 가. 밝은 아주 달고 고소했다.

나. 술 한 잔을 달게 마시고 갑득은 일어나는 대신 담배쌈지를 꺼내 곱방대에 담배를 쟁인다.

29) 2000년 한국문화사에서 출판된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에서 한국어 ‘달다’의 의미는 ‘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어 ‘甘’도 ‘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 벌린 입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차고 달게 느껴졌다

(19)의 ‘달다’는 밥, 술, 눈송이들을 먹을 때 구미가 당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어인 ‘甜’ 대신에 ‘香’³⁰⁾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19가), (19나)는 중국어로 표현하면 ‘飯很香(밥이 고소하다)’, ‘酒喝得很香(술 맛있게 먹었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단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모두 심리적 만족감을 나타내지만, 그 표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에서 단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휴식이나 자연물을 나타내는 어휘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이와 상응하는 표현이 없다. 또한 한국어의 단맛 형용사는 ‘꿈’을 수식할 때 사용되어 단꿈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주로 ‘美夢’의 형태로 나타난다.

(20) 가. 모처럼 달콤하게 쉬었다.

나. 봄날의 단 햇빛을 받으면 보리는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다. 꿈을 달게 꾸다.

라. 溫暖的陽光照在她的臉上, 她很快就進入了甜美的夢鄉.

(따뜻한 햇볕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그녀는 서서히 잠이 들어 달콤한 꿈을 꾸었다.)

마. 母親以一種堅強, 博大的母愛, 守護著孩子們的美夢.

(어머니는 위대한 모성애로 아이들의 달콤한 꿈을 지키고 있다.)

바. 我們衷心祝願她美夢成真, 因為她是如此熱愛足球.

(그녀는 축구를 정말 사랑하기에, 우리는 진심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가~다)는 한국어 용례이고, (20라~바)는 중국어 용례이다. (20가)는 한국어에서 편안하게 쉬었다는 의미이며, (20나)는 충분한 햇빛을 받는다는 표현이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20가), (20나)에는 ‘달다’와 공기하지 않는다. (20다~바)에서 ‘달다’는 모두 ‘꿈’을 표현하여 행복한 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어에서 단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대부분 부사로 사용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형용사로만 쓰인

30) 《現代漢語辭典(2005)》에서 ‘香’의 기본 의미는 ‘食物味道好(음식물의 맛이 좋고 맛이 있다)’로 제시하고 있다. 주로 음식을 씹을 때 음식물의 본래 맛을 유지하여 혀와 코 등 감각기관을 통해 맛을 느낄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여기서는 ‘입맛이 당기도록 맛있었다’와 가장 비슷한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

셋째, 한국어에서 단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고창운(2006)에서는 ‘들부드레하다, 들쩍지근하다, 들척지근하다, 들크무레하다, 들큼하다’의 표현은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 (21) 가. 들큼한 화약 냄새에 배 속이 느글거렸다.
- 나. 들쩍지근한 포도주.
- 다. 들척지근하고 매운맛이 난다.
- 라. 이 굴은 들큼하면서 신맛이 난다.

위의 다섯 가지 맛은 달기는 하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맛이 달다’-‘불만족’ 표시 어휘들을 불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의 순서로 나열하면 ‘들큼하다-들척지근하다-들쩍지근하다-들부드레하다-들크무레하다’의 순서로 정리된다(고창운 2006: 14). 이를 통해 위의 어휘의 의미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용례 (21)의 ‘들큼하다’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느낌의 미세한 차이에 따른 형태가 자유롭게 바뀔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구성 요소는 조금 바뀌어도 감정적인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어에 비하여 중국어 단어의 형태는 보다 단일적이고 고정적이며 정적이다.

넷째, 한국어에서 단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바람이나 공기 등의 자연물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중국어의 단맛 형용사는 이와 대응되지 않는다.

- (22) 가. 바람이 참 달다.
- 나. 와야, 밤공기가 참 달다.

(22가)의 ‘바람이 달다’라는 표현은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중국어에는 이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22나)의 ‘공기가 달다’라는 표현은 자연물인 ‘공기’를 사람의 감정을 이입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중국어에서는 ‘空氣真好, 真新鮮(공기가 참 좋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어에만 나타나는 미각어 ‘甜’의 은유적 의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의 ‘甜’의 차이점은 사전에서 제시된 내용이 아니고 모두 실제 언어 생활에서 가지

고 왔었다.

첫째, 중국어의 단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이익, 혜택이나 이로운 점을 얻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甜頭(좋은 점)’의 형태로 사용한다.

(23) 가. 他嘗到了讀書的甜頭.(그는 독서의 이익을 경험하였다.)

나. 妳不給對方點甜頭, 他能不卡妳嗎?

(네가 그에게 특 될 일 없이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다. 老師應該多鼓勵學生, 讓他們嘗到努力的甜頭.

(선생님은 학생에게 칭찬해주어야 하고, 학생은 노력할 때의 좋은 점을 깨달아야 한다.)

중국어의 단맛은 ‘甜頭’의 형태로 ‘이익을 얻거나 혜택을 보다’는 뜻을 표현한다. (23가), (23다)에서 사용한 ‘甜頭’는 좋은 점을 얻었다는 뜻을 표현하며, (23나)에 사용한 ‘給甜頭’는 편익을 주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오히려 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인 ‘짹짹하다’의 은유적 의미와 유사하다.

둘째, 중국어에서 ‘甘’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不’와 함께 ‘不甘’의 형태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

(24) 가. 他不甘束縛, 渴望自由.(그는 속박을 원하지 않고 자유를 갈구한다.)

나. 他從來不甘示弱, 總要超人一等.

(그는 항상 약하게 보이려 하지 않기 위해 남보다 더 노력한다.)

다. 他成功了, 這是因為他擁有凡事爭先, 不甘落後的精神.

(그가 성공했다. 이것은 그가 모든 일에서 앞을 다투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다.)

(24)의 ‘不甘’는 동사로, ‘束縛, 示弱, 落後’ 등의 부정적인 단어와 결합하는 특징이 보인다. 이를 통해 앞에 ‘달다/ 甜’의 공통점 넷째의 용례 (18)의 ‘甘’은 (24)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셋째, 중국어에서 ‘甜’는 사람의 외모를 묘사할 때 사용한다. ‘甜’가 사용된 외모 묘사는 대부분 어린 아이 또는 젊은 여자가 외형적으로 ‘예쁘고, 아름답고, 귀여울 때’에 사용한다.

- (25) 가. 這個小孩長得可真甜!(참 귀엽게 생긴 아이다.)
 나. 甜美的姑娘人見人愛.(누가 보아도 사랑스럽고 예쁜 여자이다.)

(25가)에서 아이의 귀여운 모습이 미각어의 단맛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여 ‘甜’으로 표현한다. (25나)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예뻐서 미각어의 단맛처럼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에 ‘甜’을 사용하였다. (25)와 같이 ‘甜’의 어휘는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한국어의 미각어 ‘달다’에서는 대응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달게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넷째, 중국어의 ‘甜’은 ‘듣기 좋은 말을 잘 한다’에 쓰이는 표현이다. 대부분 긍정적인 말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는 언어 어휘(說話, 話 등), 신체 어휘인 입과 결합해서 나타낸다.

- (26) 가. 她說話很甜.(그녀는 감언이설에 능하다.)
 나. 嘴不甜.(듣기 좋은 말을 잘 못한다.)
 다. “你大概是被她的幾句甜話灌醉了, 吃了虧妳才會醒!”
 (“아마 네가 그녀의 몇 마디 듣기 좋은 말에 홀린 거야. 손해를 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26)의 ‘甜’는 공통적으로 ‘듣기 좋은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상대방의 말솜씨를 칭찬할 때 사용한다. 반면, 한국어의 미각어 ‘달다’에는 대응되는 ‘甜’의 의미가 없다. (26가)의 경우, 한국에서는 ‘그녀는 듣기 좋은 말을 아주 잘 한다’는 표현으로 ‘甜’의 의미를 나타낸다. (26다)의 문맥상 그 의미가 긍정적이지는 않으나, ‘甜話’는 듣기 좋은 말을 표현한다.

다섯째, 중국어에서 ‘甜’는 어떤 대상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 ‘甜心’³¹⁾, ‘甜蜜餞兒’³²⁾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데, 그 대상은 사람이다.

- (27) 가. 我愛妳, 我的甜心, 我愛孩子們.
 (사랑한다, 나의 귀여운 아이들, 내 아이들을 사랑한다.)

31) 영어 ‘sweet heart’로 변경되었다. 애인 간의 애칭이고 부모님은 딸에게 부르는 애칭도 여긴다.

32) 중국의 유명한 드라마 ‘삼생삼세십리도화’에서 나왔는데 점점 실제 생활에서도 차용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애칭으로 사용한다.

나. 妳是我的心我的肝我的寶貝甜蜜餞兒.
 (당신은 나의 심장이고 간이며, 내가 아끼는 보물이다.)

(27)의 ‘甜’은 사람의 애칭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27가)에서 ‘甜心’은 귀여운 아이들을 표현하고, (27나)의 ‘甜蜜餞兒’는 화자가 아끼는 보물을 의미한다. 특히 ‘甜蜜餞兒’은 2017년의 대표적인 유행어로 실제 언어 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한다.

4.3. ‘쓰다/ 苦’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이 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쓰다’와 ‘苦’의 은유적 의미에 대하여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사전에서 제시하는 한국어의 ‘쓰다’의 은유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5> ‘쓰다’의 은유적 의미

사전	의미 항목
《표준국어대사전(1999)》	가. 달갑지 않고 싫거나 괴롭다. 나. 【…이】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
《국어대사전(2000)》	마뜩지 않는 일을 당하여 마음에 아니 톰도록 싫거나 언짢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가. (일이) 달갑지 않고 언짢거나 괴롭다. 나. (입맛이) 몸이 좋지 않아서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전들에서 제시된 ‘쓰다’의 은유적 의미는 대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의미 항목 ‘가’, 《국어대사전(2000)》,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가’ 모두 문장의 표현은 다르지만 ‘마뜩지 않는 일을 당하여 마음에 달갑지 않고 언짢거나 괴롭다’는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제시한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는 《국어대사전(2000)》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쓰다’의 은유적 의미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8) 한국어 미각어 ‘쓰다’의 은유적 의미

- 가. 마뜩지 않는 일을 당하여 마음에 달갑지 않고 언짢거나 괴롭다.
- 나.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

한편, 사전들에서 제시된 중국어 미각어 ‘苦’의 은유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苦’의 은유적 의미

사전	의미 항목
《現代漢語辭典(2005)》	가. 難受, 痛苦.(괴롭고 고통스럽다.) 나. 使痛苦, 使難受. (고통스럽거나 불편하게 하다.) 다. 苦於.(어떠한 이유로 고통스럽다.) 라. 有耐心的, 盡力的. (참을성이 있거나 최선을 다하다.) 마. 姓氏.(성씨.)
《古今漢語詞典(2002)》	가. 痛苦, 困苦.(어렵고 고통스럽다.) 나. 愁苦, 悲傷. (근심하고 고뇌하다. 혹은 슬퍼하다.) 다. 使痛苦, 使難受. (고통스럽거나 불편하게 하다.) 라. 苦於.(어떠한 이유로 고통스럽다.) 마. 勤奮, 刻苦.(꾸준히 하다. 혹은 노력하다.) 바. 竭力, 盡力. (전력을 기울이거나 최선을 다하다.) 사. 多, 過渡.(과도하다.)

	<p>아. 急.(중국 고대 한어에서 ‘급하다’는 의미) 자. 甚, 很. (중국 고대 한어에서 ‘아주’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 차. 姓氏.(성씨.)</p>
<p>《現代漢語規範詞典(2004)》</p>	<p>가. 勞累, 艱辛.(과로하다. 혹은 고생하다.) 나. 耐心的, 盡力的. (참을성이 있거나 최선을 다하다.) 다. 難過, 痛苦.(슬프거나 고통스럽다.) 라. 使痛苦, 使難受. (고통스럽거나 불편하게 하다.) 마. 因某種情況而感到難過或痛苦. (어떠한 원인으로 고통스러워하다.) 바. 削剪得過分, 磨損程度太大. (마모나 손상의 정도가 심하다.)</p>

위의 ‘痛苦, 困苦 (어렵고 고통스럽다)’, ‘使痛苦, 使難受 (고통스럽게 하다. 불편하다)’, ‘有耐心的, 盡力的 (참을성이 있다. 최선을 다하다)’와 ‘苦於 (어떠한 이유로 고통스럽다)’는 세 가지 중국어 사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항목에 해당한다. 《現代漢語辭典(2005)》의 ‘마’와 《古今漢語詞典(2002)》의 ‘차’는 모두 ‘姓氏 (성씨)’라는 의미가 제시되었으나,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古今漢語詞典(2002)》의 ‘사’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바’는 모두 ‘過渡 (과도하다)’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現代漢語辭典(2005)》에 대응하는 의미가 없다. 또한, ‘勞累, 艱辛 (과로하다. 혹은 고생하다)’는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에서만 제시되어 있으며, ‘勤奮, 刻苦 (꾸준히 하다. 혹은 노력하다)’, ‘急 (중국 고대 한어에서 ‘급하다’는 의미)’와 ‘甚, 很 (중국 고대 한어에서 ‘아주’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는 《古今漢語詞典(2002)》에서만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미 항목은 《現代漢語辭典(2005)》,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 고대 한어에서 제시한 ‘苦’와 ‘성씨’로 해당하는 ‘苦’의 의미는 한국어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苦’의 은유적

의미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9) 중국어 미각어 ‘苦’의 은유적 의미

- 가. 痛苦, 困苦.(어렵고 고통스럽다.)
- 나. 使痛苦, 使難受.(고통스럽거나 불편하게 하다.)
- 다. 苦於.(어떠한 이유로 고통스럽다.)
- 라. 耐心的, 盡力的.(참을성이 있거나 최선을 다 하다.)
- 마. 勞累, 艱辛.(과로하다. 혹은 고생하다.)
- 바. 愁苦, 悲傷.(근심하고 고뇌하다. 혹은 슬퍼하다.)
- 사. 削剪得過分, 磨損程度太大.(마모나 손상의 정도가 심하다.)
- 아. 勤奮, 刻苦.(꾸준히 하다. 혹은 노력하다.)

한국어와 중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이상과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어 미각어 ‘쓰다’와 중국어 미각어 ‘苦’의 은유적 의미를 종합하여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쓰다’ 기준 ‘苦’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의미 항목	의미	‘苦’와의 의미 대조
가 ³³⁾	마땅지 않는 일을 당하여 마음에 달갑지 않고 언짢거나 괴롭다.	□
나 ³⁴⁾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	×

<표 28> ‘苦’ 기준 ‘쓰다’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의미 항목	의미	‘쓰다’와의 의미 대조
가 ³⁵⁾	痛苦, 困苦.(어렵고 고통스럽다.)	×

33) <표 27>의 ‘가’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가’, 《국어대사전(2000)》의 의미 항목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가’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34) <표 27>의 ‘나’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나’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나’를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나36)	使痛苦, 使難受.(고통스럽거나 불편하게 하다.)	×
다37)	苦於.(어떠한 이유로 고통스럽다.)	□
라38)	耐心的, 盡力的.(참을성이 있다. 혹은 최선을 다하다.)	×
마39)	勞累, 艱辛.(과로하다. 혹은 고생하다.)	×
바40)	愁苦, 悲傷.(근심하고 고뇌하다. 혹은 슬퍼하다.)	×
사41)	削剪得過分, 磨損程度太大. (마모나 손상의 정도가 심하다.)	×
아42)	勤奮, 刻苦.(꾸준히 하다. 노력하다.)	×

<표 27>과 <표 2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어 사전에서 제시된 미각어 ‘苦’의 은유적 의미는 한국어 ‘쓰다’에 비해 좀더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나라의 사전에서 은유적 의미가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의미 항목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표 27>의 ‘가’는 <표 28>의 ‘다’와 유사하다. 공통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일로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의미라 볼 수 있겠다. 반면, 서로 비슷하지 않은 의미 항목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7>의 ‘나’는 <표 28>에서 대응되는 바가 없으나, ‘苦’의 실제 언어 사용상에서 비슷한 의미를 나타

35) <표 28>의 ‘가’는 《現代漢語辭典(2005)》의 ‘가’, 《古今漢語詞典(2002)》의 ‘가’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다’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36) <표 28>의 ‘나’는 《現代漢語辭典(2005)》의 ‘나’, 《古今漢語詞典(2002)》의 ‘다’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라’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37) <표 28>의 ‘다’는 《現代漢語辭典(2005)》의 ‘다’와 《古今漢語詞典(2002)》의 ‘라’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38) <표 28>의 ‘라’는 《現代漢語辭典(2005)》의 ‘라’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나’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39) <표 28>의 ‘마’는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의미 항목 ‘가’에 해당한다.

40) <표 28>의 ‘바’는 《現代漢語辭典(2005)》의 의미 항목 ‘나’에 해당한다.

41) <표 28>의 ‘사’는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의미 항목 ‘바’에 해당한다.

42) <표 28>의 ‘아’는 《古今漢語詞典(2002)》의 의미 항목 ‘마’에 해당한다.

내기도 한다⁴³⁾. 또한 <표 28>에서는 한국어 ‘쓰다’에 대응하지 않는 의미가 다른 미각어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 그 예로 <표 28>의 ‘가’, ‘나’, ‘라’, ‘마’, ‘바’, ‘사’, ‘아’는 모두 한국어의 미각어 ‘쓰다’와 대응되지 않았다.

<표 27>, <표 28>에서 제시된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 차이점과 실제 언어 생활에서 새로 나온 은유적 의미를 바탕으로, 다음은 한국어 미각어 ‘쓰다’와 중국어 미각어 ‘苦’의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합적 측면에서 대조하도록 하겠다.

미각어 ‘쓰다/ 苦’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달다/ 甜’의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달다/ 甜’은 일반적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이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반면, ‘쓰다/ 苦’는 주로 슬픔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쓰다/ 苦’의 은유적 의미를 상세하게 대조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쓰다/ 苦’의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쓰다/ 苦’는 후각으로 의미를 확장하여 어떤 좋지 않은 냄새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30) 가. 성진이 소주의 쓴 냄새를 푸후 하고 내뿜으면서 말했다.

나. 외국에 수출할 때는 쓴 냄새를 없애고 보낸다.

다. 蒼術氣味苦辛溫.(蒼術(한방 약재의 이름)은 쓴 냄새가 난다.)

라. 那碗裏是黑糊糊的, 帶著刺兒的曲曲菜, 菜葉裏邊拌著些糧食粒兒, 發出一股子苦澀的氣味.

(저 그릇 안에는 검은색을 띠며 가시가 있는 산나물이 있다. 그 산나물 안에는 밥알도 섞여 있다. 이 상태에서도 좋지 않은 쓴 냄새가 난다.)

(30가), (30나)는 한국어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이고, (30다), (30라)는 중국어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이다. (30가)에서는 소주의 냄새, (30나)는 수출하는 상품의 좋지 않은 냄새, (30다)에는 한방 약재의 냄새, (30라)는 산나물의 좋지 않은 냄새를

43) 용례 ① 最近壓力太大, 感到嘴裏發苦, 不怎麼想吃飯.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입이 써서 밥을 잘 먹고 싶지 않다.)

② 感冒了嘴裏發苦.

(감기를 걸려서 입이 쓰다.)

중국어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세한 설명은 뒤의 용례 (26)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나타낸다. ‘쓰다/ 苦’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좋지 않은, 쓴 냄새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모두 시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화자의 ‘불쾌한 상태’를 전달한다. 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웃음, 표정이나 얼굴 등과 결합하여 슬프고 불편한 느낌을 나타낸다.

- (31) 가. 선관위 직원들은 "저 사람들도 서로 누군지 모를 것"이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나. 나는 쓰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 진호는 쓸쓸한 얼굴로 담배를 찾아 피웠다.
 라. 이장이 흰 알사탕 한 알을 맛없게 까먹으면서 쓴 표정을 지었다.
 마. 他一副苦澀的表情.(그는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바. 兩個人相視苦笑, 不用說, 友情在爾虞我詐的商業競爭中已不復存在.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쓴 웃음을 지었다. 서로를 속고 속여야만 하는 상업적 경쟁 속에서 우정은 없었다.)
 사. 他不願也不敢看兒子那絕望而痛苦的表情.
 (그는 아들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아. 茫然地看著母親扭曲痛苦的臉, 不知所措.
 (지는 어머니의 고통스럽고 뒤틀린 표정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31가~라)는 한국어 용례이며, (31마~아)는 중국어 용례이다. 한국어의 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웃음, 얼굴, 표정 등과 결합하여 달갑지 않고 괴롭다는 뜻을 표현한다. (31마)의 ‘苦澀’도 ‘마음이 고통스럽다, 달갑지 않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31바)의 ‘苦笑’는 상업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정을 저버리는 모습을 슬픈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31사), (31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얼굴이나 표정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입 안에 쓴맛이 돌아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도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고, 더 나아가 식욕까지 떨어짐을 표현한다. <표 28>과 같이 중국어의 사전에는 ‘苦’가 음식의 맛이나 식욕을 떨어트린다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어에서 ‘苦’는 대부분 ‘嘴裏發苦(입에 쓴맛이 난다.)’의 형태로 사용되고, 한국어는 ‘입이 쓰다/ 입에 쓰다/ 입맛이 쓰다’와 같이 고정된 형태로 사용된다.

- (32) 가. 통 음식 맛을 모르겠어, 내 입엔 모두 쓰기만 해.
 나. 입이 쓰 아침을 드는 등 마는 등 했다.
 다. 며칠을 앓았더니 입맛이 쓰서 맛있는 게 없다.
 라. 段譽登時眼前一黑, 耳中作響, 嘴裏發苦, 全身生熱.
 (단예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울리고, 입도 쓰고, 온 몸에 열도 났다.)
 마. 陸小鳳只覺得嘴裏發苦, 正想先去找點酒喝再說.
 (육소봉은 입이 쓰다는 것을 느끼고 술을 좀 마시고 나면 어떨까를 다시 알아 보기로 했다.)
 바. 你是否在工作餐時感覺沒食欲, 嘴巴發苦, 對美食也失去興趣?
 (당신은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을 받을 때 입맛이 없었죠, 입이 썼죠, 맛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죠?)

(32가~다)는 한국어 용례에 해당하며, (32라~바)는 중국어 용례에 해당한다. (32가)와 (32다)는 몸이 좋지 않아서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입에서 쓴 맛만 느껴진다는 표현으로 입맛이 없다는 의미이다. (32나)는 입이 쓰기 때문에 아침에 입맛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32라)는 ‘段譽(소설 주인공인 단예)’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입이 쓰다는 표현이다. (32마)와 (32바)의 ‘嘴裏發苦’는 각각 ‘입이 쓰다’, ‘입맛이 떨어지다’는 의미이다. 즉, ‘입이 쓰다’는 생리적 상태를 표현하고, ‘입맛이 떨어지다’는 직원이 제공하는 식사를 먹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넷째,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쓰다/ 苦’의 은유적 의미는 주체의 심리적 태도인 ‘언짢음, 괴로움, 불쾌함의 기분’을 표현하기도 한다. 대부분 ‘인생, 일, 경험, 기억’ 등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 (33) 가. 그에게 비록 또다른 인생유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나이의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얼마만큼의 달고 쓴 인생의 흔적이 있는 법이니 그라고 하여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나. 그 사내의 험박처럼 파멸의 쓴맛을 각오했었는지 모른다.
 다. 항공기, 우주 산업과 함께 종합기술-종합공업력의 결정인 국산 함정이 미-영-일-호주 등과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만호와 운양호 사건이라는 쓴 역사적 기억을 간직한 우리로서는 하나의 쾌거로 경하할 만한 일이다.
 라. 何必去打開別人那痛苦的記憶的匣子呢?

(왜 그 사람의 쓸쓸한 기억을 떠올렸을까?)

마. 第一次痛苦的經歷永如昨日的故事清晰難忘.

(나는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처음 겪었던 쓸쓸한 경험을 잊지 못한다.)

바. 公安工作是個苦差事.(경찰의 일은 매우 쓰다.)

(33가~다)는 한국어 용례이고, (33라~바)는 중국어 용례이다. (33가)의 ‘쓰다’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나타내고, (33나)에서는 괴로운 느낌을 표현하며, (33다)에서는 과거의 슬픈 기억을 말한다. 중국어의 ‘苦’는 (33라), (33마)에서 각각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경험을 표현한다. (33바)의 ‘苦差’는 (17바)의 ‘甜差(좋은 일)’와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의 4.2의 ‘달다/ 甜’의 용례 (17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苦活兒’는 고생을 많이 하고도 돈을 조금만 벌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이는 ‘甜活兒(고생 별로 안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과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상황, 혹은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고자 할 때 쓴맛을 사용한다. 대부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국한되어 사용한다.

(34) 가. 여러분도 그 쓴 경험을 한, 혹은 하고 있는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나. 나도 초지 연구를 목적으로 7년생 리키다소나무 13그룹을 베어냈다가 검찰에 입건된 쓴 경험을 지니고 있다.

다. 일본은 지금 그릇된 친절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지금 정경 유착의 쓴 대가를 치르고 있다).

라. 苦盡甘來.(고생스러운 날이 끝나고 행복한 날이 온다.)

마. 其實他也是以痛苦的代價換來的, 只是他不告訴人罷了.

(사실 그 사람의 행복한 삶도 쓰디쓴 대가를 치른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내색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바. 小說家一邊嘆氣, 一邊悄悄地給我講了一段痛苦的经历.

(소설가는 한숨을 쉬며 나에게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조용히 얘기해 주었다.)

한국어 용례인 (34가), (34나)의 ‘쓴 경험’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타내고 있고, (34다)의 ‘쓴 대가’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중국어 용례에 해당

하는 (34라)의 ‘苦’가 나타내는 내용은 ‘고통스러운 날, 고통스러운 시간, 고통스러운 경험 등’이다. (34마)의 ‘痛苦的代價’는 쓰디쓴 대가를 나타내었으며, (34바)의 ‘痛苦的經歷’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어의 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달갑지 않다, 싫다, 괴롭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사람의 부정적인 심리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미각어인 ‘苦’는 ‘외롭다, 고통스럽다’의 의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미각어 ‘쓰다/ 苦’의 은유적 의미는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나 상황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쓰다/ 苦’에 나타나는 은유적 의미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미각어 ‘쓰다’의 은유적 의미는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중국어 미각어 ‘苦’는 ‘쓰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쓰다’와는 다르게, 중국어 ‘苦’는 비교적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활발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쓰다’의 은유적 의미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에서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찝찝하다’를 표현할 때, 대부분 ‘뒷맛이 쓰다/ 씹쓸하다’의 형태로 사용한다.

- (35) 가. 친구가 뒤에서 나를 흉본다는 것은 뒷맛이 쓴 일이 아닐 수 없다.
- 나. 권닝을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뒷맛이 씹쓸했다.
- 다. 심판의 불미스러운 판정 때문에 경기에 이겼는데도 뒷맛이 쓰다.
- 라. 제명은 무산됐지만 씹쓸한 뒷맛을 남겼다.

(35가)에서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서운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쓴맛’을 ‘뒷맛이 쓰다’로 나타내었다. (35나)에서 ‘쓰다’의 은유적 의미 항목은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5다)에서는 심판의 불공평한 판정 때문에 마음이 찝찝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5라)에서는 제명은 무산됐지만 이미 발생한 불미스러운 상황 때문에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는 뜻을 표현한다.

둘째, 한국어에서 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청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귀에 거슬리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소리를 표현한다. ‘苦’는 중국어에서도 청각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한국어의 ‘쓰다’와 표현하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중국어에서는 쓰러린 일을 겪은 후 이에 대한 원망을 나타낸다. 주로 동사 ‘吐, 倒(쏟아

내다)’와 ‘苦水’를 결합하여 ‘吐苦水’, ‘倒苦水’의 형태로 나타낸다.

- (36) 가. 어머니가 그 쓴 잔소리를 수저 위에 듬뿍듬뿍 올려놓아도, 그 맛은 어느 일류 음식점의 고급 요리를 너끈히 능가했다.
- 나. 비판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과 같다.
- 다.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익단체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나무라는 쓴 소리를 해야 한다.
- 라. 三人在一起互吐苦水.
(세 사람은 만나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 마. 這樣，每個連隊一開訴苦會，大家都爭著倒苦水，會場上形成一片訴苦聲。
(이러하여 각 중대는 회의를 할 때마다 모두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 회의장에서 자신이 겪은 쓰라린 일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 바. 經驗告訴我，對人吐苦水最立竿見影的好處，就是舒了心中的一口悶氣，其他的效果就難說了。
(어떠한 일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면 자신의 마음이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다른 효과는 잘 모르겠다.)

(36가~다)는 한국어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이고, (36라~바)는 중국어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이다. 한국어의 ‘쓰다’는 대부분 ‘소리’, ‘비판’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미각어가 청각으로 의미를 확장하여 ‘듣기에는 거슬리거나 들을 때 마음이 불쾌하지만 도움이 되는 말’을 나타낸다. (36가)의 ‘쓰다’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기 싫지만 유용한 말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36나)는 약을 먹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나타나는데, 쓴 맛이 나는 약은 당장 먹기는 힘든 일인지는 몰라도, 효능의 측면에서 보면 몸에 이롭다. 마찬가지로 충고나 꾸지람, 비판의 말들은 지금 당장 듣기에는 달갑게 느껴지지 않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과 같다. (36다)에서는 이익 단체의 이기적인 주장을 비판하는 말을 ‘쓴 소리’로 나타내었다. (36라~바)의 ‘苦水’는 표면적으로 ‘쓴 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인 ‘어떠한 일에 의해 겪게 된 고통’을 나타낸다. 이들은 각각 ‘서로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쓰라린 마음을 호소하는 소리’라는 뜻을 나타낸다.

셋째, SJ-RIKS Corpus에서 발견한 ‘쓰다’에 관한 용례는 한국어의 ‘쓰다’와 특정한 단어와 결합하는 표현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로 쓰인다고 보고

있다.

- (37) 가. 고독처럼 쓰고, 사랑처럼 강렬하고, 음악처럼 향기로운 커피.
 나. 그 쓴 환멸을 나는 안경알 속에 숨겼다.
 다. 익숙해진 실망을 다시 확인하는 오늘의 시간은 소태 같이 쓰고...

(37가)의 ‘쓰다’는 ‘고독’과 결합하여 ‘괴롭고 고통스럽다’의 뜻을 표현한다. (37나)의 ‘쓰다’는 ‘환멸’과 결합하여 고통스러운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다. (37다)의 ‘쓰다’는 ‘소태’와 결합하여 표면적 의미인 소태의 맛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되어 나타나는 실망을 오늘에도 하게 되어 괴롭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경수 (2012)도 ‘환멸’과 같은 감정이나 ‘고독’하고 ‘침묵’하는 상태, 그리고 ‘시간’과 같은 추상적 개념에 ‘쓰다’와 공기하면 부정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중국어에서만 나타나는 ‘苦练’의 은유적 의미는 중국어 사전뿐 아니라 실제 언어 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苦练’에 관한 유행어가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에서 ‘苦练’는 ‘고생을 감내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일을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刻苦’의 형태로 나타내며, ‘열심히 하다, 노력을 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 (38) 가. 每個家長都希望自己的孩子能刻苦學習.
 (모든 부모는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
 나. 他為了這個比賽刻苦練習了很多年.
 (그는 이 경기를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다.)
 다. 她走出法院, 去學服裝設計, 學得異常刻苦.
 (그녀는 법대를 졸업한 후 패션 디자인을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떠났다.)
 라. 從此以後, 我幾乎利用了全部業餘時間, 刻苦攻讀.
 (그 이후에,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쏟아서 열심히 공부한다.)

(38)에서는 모두 ‘열심히 공부하다. 열심히 연습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38)와 같이 ‘學習’과 ‘練習’은 동작의 범주에 속하는데, ‘刻苦’란 쓴맛에서 파생된 단어로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고생’은 쓴맛을 느끼는

것과 같이 생리적, 심리적 상태가 결합한다. 미각으로 느낀 쓴맛이 동작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고생’을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인 ‘刻苦’로 나타난다. 나아가 ‘刻苦’는 동작의 범주를 나타낼 때, ‘苦’는 활동의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몹시 애를 쓰다’와 같은 뜻을 나타낸다.

둘째, 중국어에서 ‘苦’는 ‘너무 많이 사용하다, 손실이 심하다, 마모나 손상의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39) 가. 這鞋穿得太苦了, 不能修理了.

(이 신발은 너무 오랫동안 신어서 닳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선조차 할 수 없다.)

나. 指甲剪得太苦了.(손톱을 너무 많이 깎았다.)

(39)의 ‘苦’는 ‘과도하다’와 ‘지나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39가)는 신발을 너무 오랫동안 신은 탓에 더 이상 수선할 수 없는 상태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쓴맛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대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39나)의 ‘苦’는 손톱을 깎은 정도가 과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중국어에서 쓴맛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몹시 춥다’와 같이 체감하는 온도, 혹은 날씨의 거친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대부분 ‘苦寒’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40) 가. 北地苦寒, 入冬四野皆白, 滴水成冰.

(북방은 겨울에 온도가 너무 낮고, 눈 때문에 사방이 하얗게 덮여 물도 모두 얼었다.)

나. 寶劍鋒從磨礪出, 梅花香自苦寒來.

(보검은 많이 갈았기 때문에 날카로우며,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때문에 향기로운 것이다.)

다. 魯迅周作人是敢於下地獄的, 苦風冷雨中也得到各自生命的深層體驗.

(루쉰, 즉 주작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생명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어에서는 ‘몹시 춥다’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미각어 ‘맵다’로 표현하지 만 중국어에서는 ‘쓰다’로 나타낸다. (40)의 ‘苦’는 ‘차다’를 의미하는 ‘寒’과 ‘바람’

을 의미하는 ‘風’과 공기하여 ‘苦寒’ 과 ‘苦風’의 모양으로 사용된다. 이는 ‘추위의 정도가 심하다, 날씨가 험악하다’ 등으로 몹시 추운 날씨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중국어의 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나타낸다.

- (41) 가. 人苦不知足.(사람들은 난관에 부딪힐 때, 원망을 자주 한다.)
 나. 他們磨舌如刀, 發出苦毒的言語, 好像比準了的箭.
 (그들의 혀는 화살처럼 항상 독한 말을 쏘아댔다.)

(41가)에서 ‘苦’는 동사로서 ‘원망하다’는 뜻을 표현하며, (41나)에서 ‘苦’는 부사로서 ‘毒’을 표현하여 ‘몹시 미워하다’는 뜻을 표현한다.

다섯째, 중국어에서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과 ‘苦’가 함께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비관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대부분 ‘吃苦耐勞’의 형태로 나타낸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낙관적으로 여기기도 한다.

- (42) 가. 天將降大任於斯人也, 必將苦其心誌, 勞其筋骨, 餓其體膚.
 (하느님은 어떤 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내릴 때, 꼭 그 사람을 굶겨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라고 명하였다.)
 나. 一天復一天, 一月復一月, 不知吃了多少苦, 流了多少汗.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모른다.)

(42)의 ‘苦’는 동사의 형태로 ‘고통스럽게 하다, 괴롭히다. 곤궁하게 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42가)의 ‘苦其心誌’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처지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인다. (42나)의 ‘吃苦’는 쓴 것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생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중국어의 ‘吃苦耐勞’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로, 중국에서는 ‘吃苦耐勞’⁴⁴⁾를 중요한 인품으로 삼는다.

여섯째, 중국어에서 ‘苦’는 어떤 상황에 대한 좋지 않은 결과나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표현한다. 대부분 결과를 나타내는 ‘果’와 결합하여 ‘苦果’의 형태로 나타낸다.

44) ‘吃苦耐勞’의 출처는 주은래의 『目前形勢和新四軍的任務』이다. ‘吃苦耐勞’는 힘든 생활을 지낼 수 있고, 힘든 일도 적응할 수 있다는 뜻을 지닌다.

- (43) 가. 自己用肩頭承擔了一切, 自己吃盡一切的苦果, 不再給別人留下痛苦。
 (힘든 일을 견디고 책임을 다한다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좋지 않은 결과를 모든 자기를 받았다.)
- 나. 那次失敗是一次難以吞咽的苦果.(저번의 실패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였다.)
- 다. 所以一切苦果都是自己招感來的, 而不是什麼天神⁴⁵⁾, 閻王爺⁴⁶⁾, 妖魔鬼怪作祟。
 (그래서, 나쁜 결과는 모두 자신이 초래한 것이므로 천신, 염마왕, 괴신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 라. 我的猶豫終於釀出了苦果.
 (나의 망설이는 성격은 결국 원치 않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43)의 ‘苦果’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초래하게 될 손해를 말한다. 중국어의 ‘苦命’과 ‘苦果’ 이외에도 미각어 ‘苦’와 결합된 형태로 ‘苦處’, ‘苦衷’, ‘苦膽’ 등의 명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나 역경에 처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일곱째, 중국어에서 ‘苦’는 비유적으로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하다, 참을성이 있고 인내심도 깊어서 어떤 일을 꾸준히 한다’에 쓰이기도 하며, ‘苦’는 부사로 사용된다.

- (44) 가. 經過家人的苦苦相勸, 他終於放棄了自殺的念頭。
 (가족들이 힘을 다해서 설득한 결과, 그는 결국 자살을 포기하게 되었다.)
- 나. 我和龍濟光苦口婆心的談了十幾點鐘。
 (나와 용기광은 10분 동안 고생한 끝에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 다. 越是刻意追求, 苦心經營, 越是不達。
 (애써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하여 바란다고 해도 예상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 라. 他經過一夜苦思苦想: 是退, 還是進呢?
 (그는 물러날지, 나아갈지를 밤새도록 깊이 고민했다.)

(44가), (44나)에서 미각어 ‘苦’와 결합된 ‘苦苦相勸’과 ‘苦口婆心’의 형태는 ‘끈기 있게, 모든 힘을 다하다’는 뜻이 있다. 이는 ‘인내심을 갖고 어떤 일을 꾸준히 한

45) 하늘의 신령. 천신(天神)은 하늘 자체를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하늘에 있는 초인적인 신격을 믿음으로써 생겨난 개념이다.

46) 염마(閻魔)는 산스크리트어 yama의 음사, 박(縛)·차지(遮止)라고 번역. 박(縛)은 죄인을 포박한다는 뜻, 차지(遮止)는 악을 막는다는 뜻. 죽은 이의 생전의 행적에 따라 상벌을 준다는 저승의 왕.

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반면, 한국어의 ‘쓰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없다. (44다)의 ‘苦心經營’은 ‘애써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하여 바란다’는 의미이다. (44라)의 ‘苦思苦想’은 ‘깊이 있게 신중히 생각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여덟째, ‘苦’는 ‘苦於’의 형태로 나타날 때, ‘어떤 이유와 상황으로 고통스럽다’는 의미를 지닌다.

(45) 가. 苦於資金不足.(자금 부족으로 고생한다.)

나. 苦於不識字.(글을 몰라 고생했다.)

다. 人生苦短, 及時行樂.⁴⁷⁾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을 잘 관리하여 인생을 즐겁게 지내도록 해야 한다.)

(45가)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5나)는 글을 모르는 상태로 고생하였다는 의미이다. (45다)의 ‘苦於’는 인생은 짧은 상태에서 아쉽고 고통스러웠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부족한 자금’, ‘모르는 글’, ‘짧은 인생’ 등과 사람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로,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러한 은유적 의미는 한국어의 ‘쓰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어의 ‘고생스럽다’로 대신할 수 있다.

아홉째, 중국어의 ‘苦’는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 주로 ‘比’와 함께 ‘苦比’⁴⁸⁾의 형태로 나타난다.

(45) 牛比⁴⁹⁾的人都是相似的, 苦比的人各有各的苦比.

(일을 잘하는 사람의 상황은 모두 비슷하겠지만, 일을 못 하는 사람은 잘하고 싶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

(45)에 제시된 ‘苦比’는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는 유행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5년에 인터넷의 유행어로 등장하였고, 지금까지도 중국 언어 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47) ‘人生苦短’은 불교에서, ‘及時行樂’은 중국의 시 《新刊大宋宣和遺事》에서 유래한 것이다.

48) ‘苦比’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비유하는 비속어로, 어떠한 일에 만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9) ‘牛比’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의미이다.

4.4. ‘맵다/ 辣’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이 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맵다’와 ‘辣’의 은유적 의미에 대해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사전들에서 제시하는 ‘맵다’의 은유적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9> ‘맵다’의 은유적 의미

사전	의미 항목
《표준국어대사전(1999)》	가.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 나. 날씨가 몹시 춥다. 다. 연기 따위가 눈이나 코를 아리게 하다. 라. 결기가 있고 야무지다.
《국어대사전(2000)》	가.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 나. 매우 춥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가. (날씨가) 몹시 춥다. 나. (연기가) 눈이나 코를 아리게 하는 상태에 있다. 다. (성질이나 분위기가) 몹시 차갑고 냉혹하다. 라. (눈길이나 손길, 매 따위가) 몹시 아프거나 따갑다. 마. (숨씨가) 몹시 야무지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맵다’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나’, 《국어대사전(2000)》의 ‘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가’에서 모두 ‘날씨가 몹시 춥다’는 의미로 제시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가’와 《국어대사전(2000)》의 ‘가’는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는 의미가 제시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다’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나’는 모두 ‘연기 따위가 눈이나 코를 아리게 하다’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라’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마’는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모두 ‘결기가 있고 야무지다’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한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다’와 ‘라’는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국어대사전(2000)》에서 제시된 바가 없다. 이를 바탕으로 ‘맵다’의 은유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6) 한국어 미각어 ‘맵다’의 은유적 의미

- 가.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
- 나. (날씨가) 몹시 춥다.
- 다. 연기 따위가 눈이나 코를 아리게 하다.
- 라. (성질이나 분위기가) 몹시 차갑고 냉혹하다.
- 마. 결기가 있고 야무지다.
- 바. (눈길이나 손길, 매 따위가) 몹시 아프거나 따갑다.

한편, 중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중국어 ‘辣’의 은유적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0> ‘辣’의 은유적 의미

사전	의미 항목
《現代漢語辭典(2005)》	가. 辣味刺激 (口, 鼻或眼). (눈, 코, 입 따위가 매운 것으로 자극해서 그런 느낌.) 나. 狠毒.(독하다.)
《古今漢語詞典(2002)》	가. 辣味刺激人的, 眼, 鼻, 口. (매운맛이 눈, 코, 입과 같은 감각 기관을 자극하다) 나. 狠毒, 厲害.(성질이 나쁘고 독하다.)
《現代漢語規範詞典(2004)》	가. 辣味刺激(感官). (매운맛이 감각 기관 눈, 코, 입을 자

	극하다.) 나. 兇悍, 狠毒.(성질이 나쁘고 독하다.)
--	-----------------------------------

위의 중국어 사전들을 바탕으로 열거한 ‘辣’의 은유적 의미는 세 사전 모두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맵다’의 은유적 의미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辣’의 은유적 의미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7) 중국어 미각어 ‘辣’의 은유적 의미

- 가. 辣味刺激人的, 眼, 鼻, 口.(매운맛이 감각 기관 눈, 코, 입을 자극하다.)
- 나. 狠毒, 厲害.(성질이 나쁘고 독하다.)

한국어와 중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이상과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어 미각어 ‘맵다’와 중국어 미각어 ‘辣’의 은유적 의미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맵다’ 기준 ‘辣’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의미 항목	의미	‘辣’와의 의미 대조
가50)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	○
나51)	(날씨가) 몹시 춥다.	×
다52)	연기 따위가 눈이나 코를 아리게 하다.	○
라53)	(성질이나 분위기가) 몹시 차갑고 냉혹하다.	×
마54)	결기가 있고 야무지다.	×
바55)	(눈길이나 손길, 매 따위가) 몹시 아프거나 따갑다.	×

50) <표 31>의 ‘가’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가’와 《국어대사전(2000)》의 ‘가’가 결합한 의미에

<표 32> ‘辣’ 기준 ‘맵다’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의미 항목	의미	‘맵다’와의 의미 대조
가 ⁵⁶⁾	辣味刺激人的, 眼, 鼻, 口. (매운맛이 감각 기관 눈, 코, 입을 자극하다.)	○
나 ⁵⁷⁾	兇悍, 狠毒.(성질이 나쁘고 독하다.)	○

<표 31>은 한국어 ‘맵다’의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중국어인 ‘辣’와 대조하였고, <표 32>는 중국어 ‘辣’의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국어인 ‘맵다’와 대조하였다.

대조 결과 우리는 한국어 ‘맵다’의 은유적 의미는 중국어 ‘辣’에 비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통적인 의미 항목이 존재하였다. <표 31>의 ‘가’는 <표 32>의 ‘나’와 의미가 동일하고 모두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라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한편, <표 32>의 ‘가’는 한국어 ‘맵다’와 의미가 대응되지 않지만, 한국의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맛이 후각적으로 의미가 확장된 은유적인 표현이 존재한다.⁵⁸⁾ 반면에, <표 31>의 ‘나’, ‘다’, ‘라’, ‘바’, ‘사’, ‘아’의 의미는 중국어 ‘辣’에 대응되지 않았다.

<표 31>, <표 32>에서 제시된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 차이점과 함께 실제 언어 생활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은유적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맵다

해당한다.

- 51) <표 31>의 ‘나’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나’, 《국어대사전(2000)》의 ‘나’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가’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 52) <표 31>의 ‘다’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다’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나’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 53) <표 31>의 ‘라’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의미 항목 ‘다’에 해당한다.
- 54) <표 31>의 ‘마’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라’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마’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 55) <표 31>의 ‘바’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의미 항목 ‘라’에 해당한다.
- 56) <표 32>의 ‘가’는 《現代漢語辭典(2005)》의 ‘가’, 《古今漢語詞典(2002)》의 ‘가’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가’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 57) <표 32>의 ‘나’는 《現代漢語辭典(2005)》의 ‘나’, 《古今漢語詞典(2002)》의 ‘나’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나’를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 58) ‘양과 쌀 때 눈이 맵다’와 같은 표현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뒤에 용례 (40)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辣'의 은유적 의미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대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맵다/ 辣'의 은유적 의미는 4.3.의 제시된 '쓰다/ 苦'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어 미각어 '맵다'는 중국어 미각어인 '辣'보다 더욱 많은 은유적 의미 항목을 발견하였다.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맵다/ 辣'의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맵다/ 辣'는 후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향기나 냄새'를 표현한다.

(48) 가. 물론 그럴 때면 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하숙집이 연대 정문 바로 가까이였기 때문에 그만 창문을 열기만 하면 매운 냄새가 들이닥쳤다.

나. 고추장 찌개의 매운 향기가 풍겨나오고 있었다.

다. 교문에서 말았던 매운 냄새가 그들의 몸에서 났기에 왕형사는 그들이 데모 학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라. 新鮮的黴菌也發出刺辣的氣味.

(새로 핀 곰팡이에서 굉장히 맵싸한 냄새가 난다.)

마. 匆忙推開家門後撲面而來的辣椒香 ……

(문을 급하게 열자마자 고추의 매운 향기가 훅 끼쳤다.)

바. 小火炸至辣香撲鼻時倒入田螺, 同時打大火翻炒.

(매운 향이 날 때까지 약한 불에서 볶아 주세요. 그 다음 강한 불에서 우렁이를 넣고 볶아주세요.)

사. 瀰漫在空氣中的黃綠色帶辛辣味的毒氣已消散, 不會對人產生新的傷害.

(대기를 가득 매운 황녹색 독가스가 이미 사라져 몸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48가~다)는 한국어 용례이고, (48라~사)는 중국어 용례이다. (48가)의 '맵다'의 의미는 후각으로 의미를 확장해서 말할 수 있는 냄새로 나타난다. (48나)의 매운맛은 혀로 느낄 수 있으나, 코로 맡는 고추의 매운 냄새로도 표현할 수 있다. (48다)에서는 학생의 몸에 발산되는 특별한 냄새를 표현하며, (48라), (48사)에서는 눈이나 코, 신체 등을 자극하는 곰팡이나 독가스의 냄새를 나타낸다. (48마), (48바)에서는 요리할 때 고추를 볶을 때 나는 매운 냄새를 표현하였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매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촉각으로 의미가 확장되

어 신체 부위의 통각(痛覺)을 나타낸다.

(49) 가. 눈이 맵다.

나. 양파를 잘 때 손이 참 맵다.

다. 人們可以在流動的水中切洋蔥，這樣不會辣眼睛。

(흐르는 물 속에 양파를 썰면 눈이 맵지 않다.)

라. 洋蔥太辣弄的人流眼淚.(양파가 너무 매워 눈물이 난다.)

마. 太陽辣的如火燒，莊家曬得枯焦焦。

(햇볕이 너무 뜨거워 피부가 심하게 탄 바람에 매운 듯이 아프다. 작물도 햇볕에 심하게 타서 이미 시들었다.)

(49가), (49나)는 한국어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이며, (49다~9마)는 중국어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이다. (49가), (49다), (49라)에서 제시하는 매운맛은 ‘눈이 아프다’와 (49나)의 ‘손이 아리다’와 같이 통각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49마)의 ‘맵다/ 辣’는 ‘햇볕에 타서 피부가 아프다’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이는 피부가 고온의 자극을 받아서 느끼게 되는 아픔인 통각으로 확장되었다. 다시 말하면, 매운맛은 혀로 느끼는 감각이지만, 눈이나 손, 피부 등 신체 어휘에 사용할 때는 자극적인 느낌이 촉각의 감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매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모두 사람의 성격을 표현한다. 이는 사람의 성질이 거칠거나 사소한 일에 부주의한 성격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중국어에서 ‘辣’는 대부분 ‘潑辣’의 형태로 쓰인다.

(50) 가. 그 사람 성격이 맵다.

나. 她有天生的潑辣脾性.(그녀는 날 때부터 성격이 매웠다.)

(50)에서 제시하는 ‘맵다/ 辣’는 성격이나 성질을 표현하여 ‘성격이 독하다’라는 뜻을 표현한다. 중국어에서 ‘潑辣’는 대부분 여자의 성격을 표현할 때에 많이 쓰인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맵다/ 辣’의 은유적 의미의 차이점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은유적 의미의 항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용범위도 넓다. 우선, 한국어에서만 사용하는 ‘맵다’의 은유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에서 ‘맵다’의 은유적 의미 중에는 ‘연기 따위가 눈이나 코를 아리게 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후각으로 의미를 확장하여 사용한다.

(51) 가. 매운 연기가 가득 찼다.

나. 담배 연기가 매운지 그녀는 연방 눈을 깜박였다

다. 매운 연기는 천장의 환기통으로 빠져나갔다.

라. 최루 가스라고 아주 독하고 매운 연기가 있는데 우리 같은 참새들은 까딱 잘 못하면 생명을 잃는다고 말했지요.

(51가), (51다), (51라)에서는 ‘맵다’는 ‘연기가 매우 독하고 자극적이다’는 뜻을 표현한다. (51나)에서는 ‘담배 연기’로 인해 ‘코와 눈 등이 아리다는 느낌’을 표현한다. 이 때, 중국어에서는 ‘呛’의 형태로, 자극성 기체로 코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나타낸다. 예컨대, ‘煙很呛’는 한국어로 ‘연기가 코를 찌러 숨이 막힐 듯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한국어의 미각어인 ‘맵다’는 날씨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날씨가 몹시 춥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날씨가 ‘매우 덥다, 몹시 무덥다’의 의미로 ‘辣’를 사용한다. 즉, 한국어와 중국어의 은유적 의미 항목에서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제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2) 가. 저녁이 되자 바람은 더욱 맵게 소리를 질러댔다.

나.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는지 매운 밤공기가 살차게 그녀의 옷깃을 해집었다.

다. 서해바다 쪽에서 별관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매운 바람은 얇은 봄잠 바에 파고 들어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올렸다.

라. 七月流火, 火辣辣的太陽烘烤著大地.

(칠월은 불타는 것처럼, 무더운 날씨에 지독한 햇볕이 계속 땅을 덥히고 있다.)

마. 千錘百煉見精神盛夏的一天, 火辣辣的太陽照在饅頭山上.

(드디어 무더운 여름이 왔다. 불타는 햇볕이 산을 비추었다.)

바. 检查工作紧张地进行着, 缉私队员顶着火辣辣的太陽, 把整条船从头到尾细细滤了一遍.

(검사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었다. 밀수 검사 팀의 팀원들은 모두 지독한 햇볕 아래에서 선박 곳곳을 자세하게 수사했다.)

(52가~다)는 한국어 용례에 해당하며, (52라~바)는 중국어 용례에 해당한다. (52가~다)의 ‘맵다’는 날씨가 매우 춥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기온이 낮아짐과 함께 신체의 온도도 낮아진다는 뜻을 표현한다. 피부 등의 신체적 감각이 미각 형용사에서 자극성이 매우 강한 매운맛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52라~바)의 ‘辣’는 날씨가 몹시 무더울 몸이나 피부가 더움, 불타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한다. 즉, ‘辣’는 날씨가 표현할 때 ‘날씨가 지독할 정도로 덥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한국어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시집살이’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이는 ‘사납고 독하다’는 의미로, 시집 생활의 고통으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53) 가. 평소 보채지 않고 무던해 좋았는데, 그 곰단지 같은 아들녀석 시집살이가 이렇게 매울 줄이야.
 나. 매운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더 혹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우리 옛말이 맞는 건가요.
 다. 동생동생 말말아라 고추당초 맵다더니 시집살이 더 맵더라.

(53가), (53다)의 ‘시집살이가 맵다’는 사실상 시어머니 또는 시댁 식구들의 성미가 사납고 태도가 거칠어 시집 생활이 혹독하고 고통스럽다는 의미이다. (53나)에서는 ‘매운 시집살이’도 고된 시집살이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미각어 ‘苦’를 사용하여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한국어에서 매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숨씨가) 몹시 야무지다, 결기가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 (54) 가. 그녀는 손끝이 맵고 야무져서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한다.
 나. 며느리는 손끝이 매워서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었다.
 다. 사납숨을 쉴 수가 없다. 낮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이야기가 때로는 따끔하게 후추알같이 매운 말숨씨에 끌려서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는 사이에 잠잘 시간이 다가온다.
 라. 작은 고추가 더 맵다.

(54가), (54나)의 ‘맵다’는 사람의 특징적 형태나 구체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재

능, 재간, 재주, 솜씨 등과 공기되었다. 한국어의 매운맛은 ‘일처리가 빈틈없이 꼼꼼하고 야무지다’를 나타낸다. (54다)의 ‘매운 말솜씨’는 말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 청중을 매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54라)의 고추의 맛은 맵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담으로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 즉,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야무지다’는 의미인 것이다.

다섯째, 한국어에서 매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눈, 눈초리, 입, 코끝 등의 신체 어휘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나타낸다.

(55) 가. 박 씨는 제법 매운 눈으로 마누라를 다스렸다.

나. 그때가 생각나 새삼 진저리치는 나에게 엄마는 맵게 눈을 흘겼다

다. 그리고 곁에 앉은 친씨네에게 매운 눈총을 쏘았지만 마누라가 탄성을 하고 있지 꼬집힌 자리를 슬슬 어루만지며 어물쩍 넘어갔다.

라. 커다란 눈망을 가득 이슬을 머금고 어쩔 줄 몰라하던 여자가 갑자기 저렇듯 똑똑한 척 매운 입을 놀리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마. 최씨도 비감해지면서 세상 떠난 어머니 생각에 코끝이 매워왔다.

바. 큰형의 매운 눈초리에 주눅들며 김선진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55가), (55나)에서 ‘매운 눈’과 ‘맵게 눈을 흘겼다’는 표면적 의미처럼 신체의 일부분인 ‘눈’이 따갑거나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따가울 정도의 날카로운 시선을 의미한다. (55다)의 ‘맵다’는 눈총에서 분노나 적개심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55라)에서 사용된 ‘매운 입’은 신체적 아픔이나 다른 감각(통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에 맞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55마)의 ‘코끝이 매웠다’는 감동이나 감격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며, 화자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55라)와 (55마) ‘맵다’는 긍정적인 의미 속성을 지닌다. 한편, (55바)의 ‘매운 눈초리’는 무섭고 날카로운 시선을 나타내며, 이는 ‘김선진’이 ‘큰형’의 무서운 눈초리를 본 후 두려워서 움츠리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여섯째, 한국어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사람의 성품이나 특정 행동을 지시하는데,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표현한다.

- (56) 가. 다른 말로 바꾸면 조직사회에는 소금과 고춧가루의 역할을 하는 짜고 매운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이공익(李肯翊)이 지은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도 밝혔듯이 '공재는 자기가 득의(得意)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면 남에게 주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예술에 대해서 맬고 근엄했다.
- 다. 힘, 역동감이 아니라 고통스럽도록 매운 의지의 긴장이다.

‘맬다’는 감각 기관과 무관하게 사람의 행동과 결합하게 되면 또 다른 의미 층위를 형성한다. (56가)에서는 조직사회에서 조직원의 역할을 의미한다. (56나)는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나타내며, (56다)의 역경 중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사람의 성품, 태도를 지시할 때의 ‘맬다’는 ‘굳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빈틈없음’ 또는 ‘의지가 굳건하여 흔들림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이경수 2012: 66).

일곱째, 한국의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코퍼스인 ‘SJ-RIKS Corpus’의 용례에 근거한 미각어 ‘맬다’는 사물을 나타내는 어휘와 공기할 때 ‘힘이 매우 세고 독하다, 정도가 매우 심하고 독하다’는 뜻을 표현한다.

- (57) 가. 오늘 돌아오신 겨레의 어른들 유해는 한 줌 가루로 이미 말씀이 없으시나, 이제 더 크게 부릅뜬 눈과 이제 더 커다란 쇳소리로 다가오는 그 정신과 그 꿈은 후인들의 안일한 정신에 매운 채찍을 내리치는 듯하다.
- 나. 연예계에서 소문난 "매운 주먹"은 탤런트 김혜수 안문숙 이숙 윤아 임옥경 최정미 이진, 가수 도원경 민해경 이상은 등.
- 다. 인간 들레를 떠돌고 있는 독하고도 매운 기운을 뜻한다.
- 라.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은 노벨상으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됐지만 그 밑바탕에서 야당의 매운 비판이 가미됐기 때문에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교훈이다.

(57가)에서는 ‘매운 채찍’, (57나)에서는 ‘매운 주먹’, (57다)에서는 ‘매운 기운’의 형태로 ‘맬다’가 사용되었다. 이는 ‘힘이나 기운이 아주 세거나 그 정도가 독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57라)에서는 ‘맬다’와 ‘비판’이 공기하여 ‘정도가 심하게 하는 비판, 독한 비판’의 의미를 지닌다.

여덟째, 한국어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눈물’과 공기하여 ‘쓰디쓴 일을 당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58) 다시 매운 눈물을 흘리는 날.

(58)의 경우는 ‘눈물’을 한국어 미각어 ‘맵다’로 표현하고 ‘어떠한 쓰디쓴 일을 당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해당하는 용례가 드물기 때문에, 한국의 실제 언어 생활에서도 사용 빈도가 적은 표현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중국어에서만 나타나는 ‘辣’의 은유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에서 제시된 은유적 의미에서는 중국어 미각어 ‘辣’에 비하여 한국어 미각어 ‘맵다’의 은유적 의미가 더욱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어에서 매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관능적이다, 매력적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여성의 몸매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火’와 함께 사용되고 ‘火辣’의 형태로 나타난다.

(59) 가. 她的身材很火辣.(그녀의 몸매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나. 據智利報紙稱, 身材火辣的名模凱尼塔一直喜歡結交名人.

(칠레의 뉴스에 따르면 몸매가 굉장히 매력적인 슈퍼모델은 유명인사와의 연애를 선호한다.)

(59)에서 사람의 몸매가 매우 유혹적이고 매력적일 때, 중국어인 ‘辣’를 은유적 의미인 ‘火辣’로 표현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매력적인 여성의 몸매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핫(HOT)⁵⁹⁾’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한다.

둘째, 중국어에서 ‘辣’를 나타내는 미각어는 구체적인 일을 표현하는데, ‘까다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항목에서 ‘辣’는 해결하기 힘들고 처리하기가 복잡한 일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한다. 즉, ‘辣’는 신체 부위의 물리적 자극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운 사정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다.

(60) 가. 這事很辣手, 不太好辦.(이 일은 정말 어렵고 복잡해서 해결하기 힘들다.)

나. 這個小姐很辣手, 買兩件大衣眼都不眨, 試都不試的.

(이 아가씨는 돈을 헐프게 쓴다. 비싼 코드 두 벌을 입어 보지도 않고 바로 샀

59) 영어에서 ‘She is so hot.’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중국어와 같이 여기에서 ‘hot’는 ‘그녀의 몸매를 매력적이다’는 뜻을 표현한다.

다.)

(60가)에서는 ‘일은 정말 어렵다’는 ‘辣手’로 표현하여 일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한편, ‘辣手’은 또한 돈이나 물건을 험하게 쓴다는 의미도 지닌다. (60나)에서는 옷을 입어 보지도 않고 바로 구매하는 것과 같이 무계획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辣手’로 표현한다.

셋째, 중국어에서 ‘辣’를 나타내는 미각어는 ‘억척스럽다, 맹렬하다’는 뜻이 있으며, 인물 어휘와 함께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성격이나 언행, 수단이 악랄하거나 맹렬하고, 억척스러울 때 사용한다. 인물 어휘 이외에도 ‘手段, 心, 氣’ 등의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61) 가. 我一見到她, 就知道她是個心狠手辣的人.

(나는 그녀를 만나자마자 그녀의 마음이 독하고 수단도 악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 她的心術不正, 手段毒辣, 對誰都肯下毒手.

(그녀의 마음은 바르지 않은데다 수단도 악랄하여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다.)

다. 他腦瓜靈活, 能說善講, 心多手辣.

(그 사람은 머리가 좋고 아부도 잘 하며, 수단도 악랄하다.)

(61가), (61나)의 ‘心狠手辣’, ‘手段毒辣’는 각각 ‘사람의 마음이 독하고 모든 일의 수단이 악랄하다’는 뜻과 ‘수단이 맹렬하고 악랄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61다)의 ‘心多手辣’에서 ‘手辣’는 표면적 의미인 ‘손이 맵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활한 사람에 대한 비속한 말, 계략이 많고 수단이 악랄하다’는 의미에 해당한다.

넷째, 중국어에서 ‘辣’를 나타내는 미각어는 주로 어떠한 사물이나 행위, 상황을 시각적으로 충격을 받을 정도, 혹은 더 이상 보기 어려울 정도로 흥할 때 사용한다. 또한 어떤 노래나 음악이 기호에 맞지 않거나 흥하여 더 이상 듣기 싫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辣眼睛’, ‘辣耳朵’의 형태로 표현한다.

(62) 가. 那女明星的素顏真是辣眼睛.(저 여배우의 민낯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이다.)

나. 新改編的『西遊記』主題曲聽著真是辣耳朵.

(새로 개편하는 서유기의 주제곡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듣기 싫다.)

(62가)의 ‘辣眼睛’은 ‘여배우의 민낯’을 차마 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며, (62나)의 ‘辣耳朵’는 새로 발매된 주제곡이 듣기 싫을 정도로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용례에서는 두 가지만 제시되었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2016년부터 등장한 신조어로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4.5. ‘짜다/ 鹹’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이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인 ‘짜다/ 鹹’의 은유적 의미를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사전에 제시된 한국어의 ‘짜다’의 은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표 33> ‘짜다’의 은유적 의미

사전	의미 항목
《표준국어대사전(1999)》	(속되게) 인색하다.
《국어대사전(2000)》	(돈 씹씹이에 있어) 매우 인색하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가. (사람이나 그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하다. 나. (어떤 일이) 마음에 달갑지 않다.

한국어 사전에서 제시된 ‘짜다’의 은유적 의미 대조를 통하여 몇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통점으로는 사전들의 의미 해석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점이다. 특히 ‘(사람이나 그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하다’는 의미는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주요 의미 항목에 해당한다. 반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는 ‘(어떤 일이) 마음에 달갑지 않다’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1999)》와 《국어대사전(2000)》에는 제시된 바가 없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한 ‘짜다’의 은유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

(63) 한국어 미각어 ‘짜다’의 은유적 의미

- 가. (사람이나 그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하다.
- 나. (어떤 일이) 마음에 달갑지 않다.

한편, 사전들에서 제시된 중국어의 미각어 ‘鹹’의 은유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표 34> ‘鹹’의 은유적 의미

사전	의미 항목
《現代漢語辭典(2005)》	가. 全, 都.(전부, 다) 나. 姓氏.(성씨)
《古今漢語詞典(2002)》	가. 同, 共. (고대 한어에서 ‘같이, 함께’라는 의미) 나. 普通.(고대 한어에서 ‘보통’이라는 의미) 다. 和睦.(고대 한어에서 ‘화목하다’라는 의미) 라. 副詞, 全都.(‘전부’를 뜻하는 부사.) 마. 姓氏.(성씨)
《現代漢語規範詞典(2004)》	가. 表示某一範圍的全部, 相當於全, 都. (전부, 다) 나. 姓氏.(성씨)

중국어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鹹’의 의미 항목은 ‘全, 都 (전부, 다)’, ‘姓氏 (성씨)’가 있다. 반면에, 《古今漢語詞典(2002)》의 의미항목은 《現代漢語辭典(2005)》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에 비하여 더 많았는데, ‘同, 共 (고대 한어에서 ‘같이, 함께’라는 의미)’, ‘普通 (고대 한어에서 ‘보통’이라는 의미)’, ‘和睦 (고대 한어에서 ‘화목하다’는 의미)’이 추가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고대한어의 의미에 집중되어있었다. 4.3.의 ‘苦’와 같이 중국어 미각어 ‘鹹’의 의미 가운데에는 중국 고대 한어와 성씨에 해당되는 것은 한국어에 없기에 대조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鹹’의 은유적 의미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64) 중국어 미각어 ‘鹹’의 은유적 의미: 가. 副詞, 全都.(부사, 전부)

한국어와 중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이상과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어 미각어 ‘짜다’와 중국어 미각어 ‘鹹’의 은유적 의미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짜다’ 기준 ‘鹹’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의미 항목	의미	‘鹹’와의 의미 대조
가60)	(사람이나 그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하다.	×
나61)	(어떤 일이) 마음에 달갑지 않다.	×

<표 36> ‘鹹’ 기준 ‘짜다’의 은유적 의미 대조

의미 항목	의미	‘짜다’와의 의미 대조
가62)	副詞, 全都. (부사, 전부)	×

<표 35>는 한국어 ‘짜다’의 은유적 의미를 기준으로 중국어 ‘鹹’와 대조하였고, <표 36>은 중국어 ‘鹹’의 은유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국어 ‘짜다’와 대조하였다.

<표 35>, <표 36>에는 서로 비슷한 의미 항목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의 ‘가’와 ‘나’는 <표 36>의 중국어 ‘鹹’과 대응되는 의미가 없었고, 중국어의 실제 언어 생활에도 유사한 용법이 없다. 한편, <표 36>의 ‘가’는 ‘짜다’에 대응되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두 표를 바탕으로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실제 언어 생활에서 새롭게 나타난 은유적 의미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대조하고자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후각어로 의미가 확장되어 특정한 물건이 지닌 고유한 냄새를 나타낸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짜다/ 鹹’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은 한 가지 뿐이다.

60) <표 35>의 ‘가’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의미 항목, 《국어대사전(2000)》의 의미 항목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가’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61) <표 35>의 ‘나’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의 의미 항목 ‘나’에 해당한다.

62) <표 36>의 ‘가’는 《古今漢語詞典(2002)》의 ‘라’, 《現代漢語辭典(2005)》의 ‘가’와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의 ‘가’가 결합한 의미에 해당한다.

- (65) 가. 옷에서 짤 냄새가 난다.
 나. 짤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다. 이상하게도 그 짤 내음이 역겹게 느껴지지 않았다.
 라. 聞到了大海的鹹味.(바다의 짹짹한 냄새를 맡았다.)
 마. 我穿過鹹鹹的海風慢慢靠近妳.
 (나는 짹짹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너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바. 哈利可以嗅到鹹鹹的氣息, 聽到奔湧的海浪, 眼前是撒滿月光的海面和繁星閃耀的天空.
 (하리는 짹짹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거세게 흐르는 파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의 달이 눈앞의 고요한 바다를 비춘다.)

(65가~다)는 한국어 용례에 해당하며, (65라~바)는 중국어 용례에 해당한다. (65가), (65다)에서 나타나는 냄새는 ‘짜다’로 표현되며, (65나), (65마)의 바닷바람의 냄새를 ‘짜다’로 나타내었다. (65라), (65바)의 바다의 냄새 또한 ‘짜다, 짹짹하다’로 나타내었다.

다음은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짜다/ 鹹’의 은유적 의미 차이점이다. 한국어에서 짹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후각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한국어에만 있는 ‘짜다’의 은유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한국어에서 ‘짜다’는 일반적으로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너무 지나치거나, 어떠한 일에 지나치게 야박할 때 사용한다. 이와 같은 경우의 짹맛의 미각어는 ‘썸썸이 너그럽지 않고 인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 (66) 가. 학생들은 꽤 괜찮은 학점인 B를 받고도 교수님이 너무 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나. 그 사람은 성격이 짜다.
 다. 우리 엄마아빠는 나보고 짜디짹 짹돌이라고 한다.
 라. 그 회사는 월급이 짜다.

(66가)의 ‘짜다’는 학생들이 받은 학점이 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사용한다. 학점과 함께 주체의 성향을 평가할 수 있다.⁶³⁾ (66나)의 ‘짜다’는 ‘인색하다’는 의미로,

63) 점수는 짜게 주기 위해서는 후하게 주는 경우보다 고려해야 할 점이 더 많다. 채점의 기준이 명료하고 채점 과정이 까다로우며 후하게 주는 것에 비해서 채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재물을 아끼는 태도뿐 아니라 감정 표현과 같은 여러 일에도 공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징적이지는 않다. (66다), (66라)의 ‘짜다’는 돈을 쓰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사용한다.

둘째, 한국어에서 짤맛의 미각어는 특정 행위나 상황의 결과가 실속이 있고 알찬 경우에 ‘짹짹하다’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짹짹하다’는 ‘실속 있다, 알차다’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다.

- (67) 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제법 짹짹하게 돌아가고 있다.
- 나.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항상 짹짹한 수익을 올렸다.
- 다. 재활용품점 잘만 이용하면 짹짹하다.
- 라. 지난여름에는 수박 장사를 해서 짹짹하게 재미를 보았다.
- 마. 신랑 집에서 보낸 봉채도 짹짹했지만 신부 집에서도 예단을 실쾌하게 했다고 하데. (출처 : 박경리, 토지)

(67)에서 나타나는 ‘짹짹하다’는 ‘일이 잘 되어 실속이 있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67가)는 ‘일이 예상 외로 잘 되다’의 의미를 지닌다. (67나)에서 ‘짹짹하다’는 ‘주식을 매매한 수익이 비교적 높다’는 의미이다. 또한, (67다)에서 재활용품점을 이용할 경우와, (67라)에서 수박 장사를 할 경우는, 모두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손실 없이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67마)의 ‘짹짹하다’의 의미는 ‘물건이 실속 있고 값지다’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한국어에서 짤맛의 미각어는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못마땅한 기분을 나타낼 때 ‘짹짹하다’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짹짹하다’는 ‘못마땅함, 개운하지 않음’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다.

- (68) 가. 자본의 속성이 작용한 것이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영 짹짹하다.
- 나. 그런 초연한 태도를 흉내내려고 하니 왠지 짹짹하다.
- 다. 씻어뒀지만 막상 꺼내 쓰려니 짹짹하다.

(68가)에서는 어떠한 일의 내막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개운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68나)는 어떤 사람의 초연한 태도를 따라하는 데도 개운하지 않은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였다. (68다)에서 ‘짹짹하다’는 못마땅하거나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나

타낸다.

넷째, 한국어에서 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어떤 사람의 숨씨를 표현할 때, 규모가 있고 야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69) 가. 그 사람 숨씨가 짹짹 며느리이다.
 나. 내 친구 숨씨가 짹짹하다.

용례에서 나타내는 ‘짹짹하다’는 (69가)에서 며느리의 살림 숨씨, (69나)에서 친구의 숨씨가 일이나 행동에서 규모가 있고 야무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섯째, 한국어에서 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대부분 ‘짹짹하다’와 ‘짹짹하다’의 형태로 사용한다.

- (70) 가. 용이는 개운치가 않다. 더욱 기분이 나쁘고 짹짹하다.
 나. 방안이 너무 어두워 들어가기가 짹짹하였다.

(70가)에서는 일의 진행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표현이다. (70나)는 마음이 ‘불안하다, 꺼림칙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여섯째, 한국어에서 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어떤 상황에 대해 예상이나 기대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거나 이에 대한 만족스러움을 표현한다. 대부분 ‘짹짹하다’의 형태로 나타낸다.

- (71) 가. 김씨는 주식으로 짹짹한 재미를 보았다.
 나. 그 아르바이트는 수입이 짹짹하다.
 다. 할인매장에 짹짹한 물건들이 꽤 많다.
 라. 우리 고모는 살림을 짹짹하게 한다.

‘짹짹하다’는 조금 짠듯하면서 감칠맛이 난다는 뜻인데, ‘짜다’와는 달리 그 의미가 긍정적이다.⁶⁴⁾ 이러한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71)의 ‘짹짹하다’도 그 의미 속성

64) 맛이 짜지 않고 조금 싱겁다는 의미의 ‘심심하다’에 비해서 ‘짹짹하다’가 입맛에 더 만족스럽다. 인간의 미각은 적당하게 맛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쾌감을 일으킨다. 물론 미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적 자극도 마찬가지지만 자극이 없는 상태 역시 인간에게 권태를 발생시켜 무기력한 상태에 직면하도록 한다. 그런데 몹시 매운 음식은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먹기도 하는데 몹시 짠 음식을 고통을 느껴 가면서 먹지는 않는다. 이로 보아 인간은 일반적으로 짠맛보다 매운맛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긍정적이다. (71가)에서 관용어인 ‘재미를 보다’는 ‘성과를 올리다’라는 뜻인데 ‘짹짹하다’는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는 의미이다. (71나)의 ‘짹짹하다’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입이 많다는 뜻이다. (71다)에서 ‘짹짹하다’는 대상이 예상이나 기대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다. 가격이나 품질과 관련하여 제품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가격이나 품질이 더 만족스럽고 실속이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71라)의 ‘짹짹하다’는 솜씨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개입된 표현으로, 주어의 살림 솜씨가 अच्छ고 실속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솜씨는 절약하고 저축하는 행위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⁶⁵⁾

일곱째, 한국어에서 짹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를 사용하여, 어떤 행위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감정으로 못마땅한 감정을 나타낸다. 대부분은 ‘짹짹하다’의 형태로 나타낸다.

(72) 가. 오늘 철희와 싸운 것이 영 짹짹하다.

나. 박형사는 사건을 해결하고도 짹짹한 기문을 떨칠 수 없었다.

미각어 ‘짹짹하다’는 감칠맛⁶⁶⁾이 없이 약간 짜다는 뜻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맛이다. ‘짜다’에 비해서 불쾌감의 정도가 다소 약한 측면도 있지만 은근하게 기분 나쁜 느낌을 주며 파생된 의미도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72가)의 화자와 (72나)의 ‘박형사’는 몹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도 개운치 않은 심리 상태에 놓여 있다. (72)의 ‘짹짹하다’는 어떤 행위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감정이며, 뒷맛이 꺼림칙하거나 못마땅한 기분을 나타낸다. 또한 여기에는 아쉬움 등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도 한다. (72가)의 ‘짹짹하다’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후회의 감정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곧 참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한편 (72나)의 ‘짹짹하다’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불만이나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김준기 2008: 24).

중국어의 짹맛 미각어는 은유적 의미 항목이 한국어보다 적다. 중국어에서 짹맛을 나타내는 미각어인 ‘鹹’는 다른 어휘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표현한다.

65) 단순히 이끼고 저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계살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동일한 수입으로 더 많은 돈이나 재산을 예금이나 부동산으로 확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론 채테크 능력도 포함된다.

66) 단맛, 쓴맛, 짹맛, 신맛을 4원미라 하여 왔으나 감칠맛은 생리학적으로 다른 맛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독립적인 맛으로 공인되어 일본어인 umami로 표시한다.

첫째, 중국어에서 ‘鹹’는 슬픔의 감정을 나타낸다. 대부분 ‘澀(뚱다)’과 결합하여 ‘鹹澀’의 형태로 나타낸다.

(73) 然後，哼一段黃梅戲⁶⁷，做一宿鹹澀的夢。

(그런 후에, 황매회를 조그만 흥얼거리고 하룻밤의 슬픈 꿈을 꿔다.)

‘鹹澀’는 기본 의미는 조금 짜거나 조금 뚱은 맛을 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심리적으로 슬픈 감정을 표현한다. (73)의 어조를 보면, ‘鹹澀’는 사랑을 시작한 사람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표현한다.

둘째, 중국어에서 ‘鹹’는 ‘평범하다, 보통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로 ‘不鹹不淡’의 형태로 나타난다.

(74) 가. 寡婦原是三番五次的真的尋過死的，現在卻安靜下來了，日子不鹹不淡，但很硬紮的拖著。

(과부는 원래 자살기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안정되어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

나. 張全義好像對周仁的問話一點兒也不覺得意外，不鹹不淡地一笑，說：“什麼事？妳不是都看見啦？自己心裏還不明鏡似的？”

(장전희는 주인의 물음을 모두 예상한 듯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무슨 일? 너는 이미 더 봤었잖아? 말은 하지 않지만, 속은 뻔하잖아?”)

(74가)의 ‘不鹹不淡’은 이전에 과부의 자살 기도가 잦았으나, 이제는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不鹹不淡’은 사람끼리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나타내기도 한다. (74나)가 그러한 예인데, 주인은 사정의 원인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不鹹不淡’은 ‘장전희’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의미한다.

셋째, 중국어에서 ‘鹹’은 부사로서 ‘전부, 모두’라는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 사자

67) 원명이 황매조(黃梅調) 혹은 채다희(采茶戲)라고도 불리는 중국6대극의 하나로 안후이성(安徽省) 안칭시(安慶市, 안경시) 일대의 지방희(地方戲)이며 신중국 성립 후 신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2006년 제1차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황매희(黃梅戲)는 안후이성(安徽省)의 주요 지방희곡으로 18세기 후반 안칭시를 중심으로 완강(皖江, 환강) 상류인 후베이 황메이현(黃梅縣, 황매회)에서 하류 안후이 안칭시 쑤쑹현(宿松縣, 숙송현), 웨시현(岳西縣, 악서현), 타이후현(太湖縣, 태호현), 왕장현(望江縣, 망강현), 첸산현(潛山縣, 잠산현), 화이닝현(懷寧縣, 회녕현), 안칭시 도심, 쑹양현(枞陽縣, 종양현), 퉁청시(桐城市, 동성시) 및 안후이(安徽) 츠저우시(池州市, 지주시)에 이르는 완강(皖江) 유역의 민간 희곡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독립된 희극의 형식으로 안칭 지구에서 탄생하여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성어 ‘老少鹹宜⁶⁸⁾’의 형태로 나타낸다.

(75) 가. 那裏正是一個老少鹹宜的，寓知識於藝術的樂園。

(그 곳은 지식과 예술의 낙원으로, 아이부터 노인 모두 어울리는 곳이다.)

나. 糊米酒是武漢市歷史悠久家喻戶曉老少鹹宜的一種甜食。

(현미주는 우한시⁶⁹⁾에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이부터 노인 모두 알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75)에서는 ‘老少鹹宜’의 형태를 사용하였다. 이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울리다’는 뜻을 표현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사로 사용되는 ‘鹹’이 ‘모두, 전부’의 의미를 지닌다.

넷째, 중국어의 ‘鹹’는 곤궁에 처하였을 때 기회를 잡아 다시 일어서는 경우를 말할 때 사용한다. 대부분 ‘鹹魚翻身’의 형태로 나타난다.

(76) 가. 我要奮鬥，要反抗，要鹹魚翻身。

(나는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고 노력해야 한다.)

나. 樓市紅火“鹹魚翻身”，老樓盤“起死回生”。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잘 되어 어려운 시절에 팔지 않았던 건물을 팔 수 있게 되었다.)

다. 據報道，目前上汽已經派遣相關人員進駐煙臺車身廠進行接收準備工作，國產藍龍轎車很快就會全面推向市場，山東大宇項目即將“鹹魚翻身”。

(뉴스에 따르면, ‘상해 일치’라는 회사가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차(車)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산둥 대우’ 계획이 드디어 회사를 살려내고 있다.)

라. 小演員通過不良手段上位壹下就鹹魚翻身了。

(인기 없는 배우는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 예전보다 유명해졌다.)

‘鹹魚翻身’은 표면적 의미처럼 썩은 생선은 몸을 돌릴 리 없지만, 중국 사람은 ‘鹹魚翻身’을 기사회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鹹魚翻身’은 (76가)에서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는 뜻, (76나)에서 시장의 생황을 다시 잘 되는 뜻, (76다)에서 계획이 기사회생하고 다시 살려내는 뜻을 표현한다. (76라)의 ‘鹹魚翻

68) ‘老少鹹宜’은 중국의 사자성어이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어울리다’는 뜻을 지닌다.

69) 우한시는 중국의 호북성에 속한다.

身’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鹹魚翻身’은 사람을 비웃을 때 쓰는 말로 부정적인 의미도 갖는다.

다섯째, 중국어에서 미각어 ‘鹹’은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인다. 주로 ‘鹹’과 ‘豬手’가 결합되어 그 의미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鹹濕手, 鹹濕熱吻⁷⁰⁾’의 형태로 나타난다.

(77) 가. 無知少女遭遇鹹豬手.(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다.)

나. 喝醉酒亂伸鹹豬手調戲兩女推倒孕婦被處罰.

(술에 취해 두 여자를 성추행하고 임신부도 밀어 넘어뜨려서 처벌을 받았다.)

다. 實拍地鐵鹹濕手.

(지하철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현장에서 촬영하였다.)

(77)에서의 ‘鹹豬手’, ‘鹹濕手’은 모두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비유하는 비속어로 사용되었다. (77가), (77나)는 각각 소녀와 임신부가 성추행을 당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77다)의 ‘鹹濕手’은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70) “無知少女遭遇鹹豬手”-출처: 深圳晚報, (2003年07月01日)

“喝醉酒亂伸鹹濕手調戲兩女推到孕婦被罰”-출처: 南國早報南寧 (2004年02月12日)

“而在高雄的一場‘鹹濕熱吻’趣味比賽中, 20多對情侶檔, 夫妻檔在眾目睽睽大玩‘彎當草莓遇上奶油’鹹濕遊戲, 후략”-출처: 中國新聞網 (2004年08月23日)

5. 결론

미각어는 식생활에서 생리적으로 느끼는 ‘맛’을 표현하는 어휘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 의미가 서로 다르고 쓰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각 언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인 또는 중국인이 미각어를 학습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다섯 가지 미각어, 곧 ‘시다/ 酸, 달다/ 甜, 쓰다/ 苦, 맵다/ 辣, 짜다/ 鹹’의 의미를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로 구분하여 대조함으로써, 한국어 혹은 중국어 학습자들이 그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논의의 과정 및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미각어의 의미를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 두 가지로 구분하여 대조함으로써, 한국어 혹은 중국어 학습자들이 그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다섯 가지 미각어 ‘시다/ 酸, 달다/ 甜, 쓰다/ 苦, 맵다/ 辣, 짜다/ 鹹’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두 나라 미각어의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대조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각어를 대조한 선행 연구는 현재까지 15편인데, 이는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었다. 첫째, 다섯 가지 미각어를 중심으로 대조한 연구, 둘째, 다섯 가지 미각어와 함께 다른 미각어도 포함하여 대조한 연구, 셋째, 다섯 가지 미각어인 ‘시다/ 酸, 달다/ 甜, 쓰다/ 苦, 맵다/ 辣, 짜다/ 鹹’ 중 한두 가지만을 선정하여 대조한 연구가 그것이다.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미각어에 대한 연구는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활발한 면모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미각어의 일부에 해당하는 미각 형용사나 복합어 미각 형용사만 한정된 연구라 할 수 있어 미각어 자체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하여 본고는 대부분 사전적 의미 분석에 국한된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사전에서 제시된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생활에서 새롭게 나타난 의미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본고의 미각어에 관한 신어 분석은 선행 연구에 시도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미각어의 개념 및 미각어의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술하였다. 미각어의 개념은 사전에 제시된 의미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에서는 ‘혀의 미뢰에 의해 화학적

자극을 느끼는 감각을 표현하는 어휘'라고 정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른 정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정의와 감각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 나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미각어는 혀의 자극에 의하여 느끼는 감각을 언어로 표현한 미각과 관련된 어휘라는 공통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미각어의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알아보았다.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의 기본 의미는 선행 연구에서 대부분 유사하다고 언급된 바 있다. 한편,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는 인지미론에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인지미론의 관점에서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는 인간에게 익숙한 미각어의 인지에서 기타 감각으로의 추상적인 인지 영역의 투영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제3장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어대사전(2000)》,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서 제시된 한국어 미각어의 기본 의미와 《古今漢語詞典(2002)》, 《現代漢語規範詞典(2004)》, 《現代漢語辭典(2005)》에서 제시된 중국어 미각어의 기본 의미를 대조하여 분석한 바를 정리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인 '시다/ 酸, 달다/ 甜, 쓰다/ 苦, 맵다/ 辣, 짜다/ 鹹'의 기본 의미는 모두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본고의 핵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전에서 제시된 '시다/ 酸, 달다/ 甜, 쓰다/ 苦, 맵다/ 辣, 짜다/ 鹹'의 은유적 의미와 함께 실제 언어생활에서 나타난 새로운 의미를 바탕으로 대조 분석하였다. 두 나라의 말뭉치 자료에서 제공하는 용례를 각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 양상에 따라 분류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살펴보고 대조하였다. 이에 따른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밝혀내었다.

한·중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를 대조한 결과, 두 나라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는 공통적으로 후각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른 영역⁷¹⁾에서의 전이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 의미와 쓰임에서 차이를 보였다. '시다/ 酸, 달다/ 甜, 쓰다/ 苦, 맵다/ 辣, 짜다/ 鹹'를 은유적 의미 측면에서 대조할 때, 가장 많은 공통점을 지닌 미각어는 '쓰다/ 苦'로, 총 다섯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어의 미각어를 기준으로 중국어와 대조할 때,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미각어는 한국어의 '맵다'로, 총 여덟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한국어

71) 뒤의 <표 37>와 같이, 다른 영역은 시각, 청각, 촉각을 말한다.

에서는 ‘매운 연기가 가득 찼다.’와 같이 연기를 ‘땀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또한, ‘매운 밤공기’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차가운 밤공기’ 혹은 ‘밤에 온도가 낮아서 몹시 춥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火辣辣的太陽’에서 중국어 ‘辣’는 한국어와는 다르게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외에 한국어의 ‘손끝이 땀다’는 ‘숨씨가 몹시 야무지다’는 뜻을 나타내지만 중국어에서 이러한 의미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어 미각어를 기준으로 한국어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미각어는 ‘苦’로, 총 아홉 가지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중국어에서 ‘刻苦’는 ‘열심히 하다,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요한 인품에 해당하는 ‘吃苦耐劳’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을 지닌다. 또한 2015년부터 인터넷에서 유행어로 등장한 ‘苦比’는 어떠한 일에 만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풍자적으로 나타낸 어휘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어에만 존재하는 의미이며, 한국어에는 이에 대응하는 의미가 없었다.

이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의 의미 전이 양상은 공감각적 전이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각어의 공감각적 의미 전이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37>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의 공감각적 의미 전이 양상 대조

	후각		청각		시각		촉각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신맛을 나타나는 미각어	○ ⁷²⁾	○	× ⁷³⁾	○	×'	×'	○	○
단맛을 나타나는 미각어	○	○	○	○	○	○	×'	○
쓴맛을 나타나는 미각어	○	○	○	×'	○	×'	×'	×'
매운맛을 나타나는 미각어	○	○	×'	×'	×'	×'	○	○
짠맛을 나타나는 미각어	○	○	×'	×'	×'	×'	×'	×'

위에 따르면,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모두 후각으로 그 의미가 전이된다는 것을

72) ‘○’은 이 영역으로 전이됨을 의미한다.

73) ‘×’은 이 영역으로 전이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알 수 있으나, 그 외의 청각, 시각, 촉각은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후각에 비하여 공감각적 의미 전이의 양상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한국어에는 미각어의 의미가 청각과 시각으로 전이되는 미각어는 ‘달다’와 ‘쓰다’이며, 촉각으로 전이되는 것으로는 ‘시다’와 ‘맵다’에 해당한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미각어의 의미가 청각으로 전이되는 미각어는 ‘酸’과 ‘甜’, 시각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甜’, 촉각으로 전이되는 것으로는 ‘酸’, ‘甜’, ‘辣’가 있다. 또한, 위에는 언급된 바가 없으나, 단맛, 쓴맛과 신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심리 측면’ 범주에서 의미 확장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짠맛과 매운맛을 나타내는 미각어는 주로 ‘사람의 특징’에 관한 범주에서 은유화하여 사람의 성격이나 품행 등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특히, 미각어의 의미 전이 양상이 주로 후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후각이 미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일반적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특정 감각이 다른 감각과의 연관성이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가 공감각적 의미 전이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후각을 제외한 청각, 시각, 촉각 또한 의미 전이의 양상은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하나,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인지 체계가 비록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대부분 유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의 원인은 문화를 비롯하여 역사 혹은 사회적 요인으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다섯 가지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시다/ 酸’의 은유적 의미

	시다	酸
공통점	① 의미가 후각으로 확장되어 좋지 않은 냄새를 표현한다. ② 의미가 촉각으로 확장되어 몸이 아프거나 무기력한 느낌을 나타낸다. ③ 신체 어휘와 공기하여 슬픔과 상심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다.	
차이점	어떠한 대상이 화자의 마음에 들지 않음을 표현할 때 차이가 나타난다. 의미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유사하나, 실제 사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	① 인물, 신체, 언어 관련 어휘와 공기하여 ‘말과 행동이 진부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p>못한다’는 의미를 지닌다.</p> <p>② 남녀 간의 애정으로 인한, 혹은 사람 간의 일반적인 질투를 의미한다.</p> <p>③ 슬픔의 감정을 나타낸다.</p> <p>④ 처지가 어렵거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의미를 지닌다.</p> <p>⑤ 인물 어휘나 언어 표현과 공기하여 느끼하다는 의미를 지닌다.</p> <p>⑥ 시원하다는 의미를 지닌다.</p>
--	--	--

<표 39> ‘달다/ 甜’의 은유적 의미

	달다	甜
공통점	<p>① 후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맛있고 향기로운 냄새를 표현한다.</p> <p>② 청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감미로운 소리나 즐거운 분위기, 유쾌한 기분을 나타낸다.</p> <p>③ 행위나 상황에 전이되어 화자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나타낸다.</p> <p>④ 고통이 뒤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 그 대가를 불만 없이 받아들임을 나타낸다.</p>	
차이점	<p>① 대상이 되는 음식의 맛이 좋음을 나타낸다.</p> <p>② 휴식이나 자연물 관련 어휘와 결합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나타낸다.</p> <p>③ ‘들부드레하다, 들쩍지근하다, 들척지근하다, 들크무레하다, 들큼하다’는 표현은 모두 만족스럽지 않음을 나타내어 부정적인 의미</p>	<p>① ‘이익, 혜택이나 이로운 점을 얻다’는 의미를 지닌다.</p> <p>② ‘不甘’의 형태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낸다.</p> <p>③ 주로 어린 아이 또는 젊은 여성이 외형적으로 ‘예쁘고, 아름답고, 귀여움’을 표현한다.</p> <p>④ 듣기 좋은 말을 함을 나타낸</p>

	를 지닌다. ④ 바람이나 공기 등의 자연물을 수식할 수 있는 반면 중국어의 단맛 형용사는 이와 대응되지 않는다.	다. ⑤ 대상이 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을 지닌다.
--	---	--------------------------------------

<표 40> ‘쓰다/ 곱’의 은유적 의미

	쓰다	곱
공통점	① 후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좋지 않은 냄새를 표현한다. ② 시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화자의 슬프고 불편한 상태를 나타낸다. ③ 입 안에 쓴맛이 돌아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식욕이 떨어짐을 표현한다. ④ 주체의 심리적 태도인 ‘언짢음, 괴로움, 불쾌함의 기분’을 표현한다. ⑤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상황, 혹은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다.	
차이점	①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찝찝함을 표현한다. ② 귀에 거슬리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소리를 표현한다. ③ 특정한 단어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쓰인다.	① 어떤 일을 할 때 고생을 참아내고 열심히 노력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② 너무 많이 사용하다, 손실이 심하다, 마모나 손상의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③ ‘몹시 춥다’는 뜻을 표현한다. ④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표현한다. ⑤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과 ‘곱’가 함께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비관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⑥ 어떤 상황에 대한 좋지 않은 결과나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

		를 표현한다. ⑦ 비유적으로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하다, 참을성이 있고 인내심도 깊어서 어떤 일을 꾸준히 한다’에 쓰인다. ⑧ ‘어떤 이유와 상황으로 고통스럽다’는 의미를 지닌다. ⑨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다.
--	--	--

<표 41> ‘맵다/ 辣’의 은유적 의미

	맵다	辣
공통점	① 후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향기나 냄새를 표현한다. ② 촉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통각을 나타낸다. ③ 사람의 성격을 표현한다.	
차이점	① ‘연기 따위가 눈이나 코를 아리게 하는 상태’를 표현한다. ② 매우 추운 날씨를 나타낸다. ③ ‘시집살이’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④ ‘(숨씨가) 몹시 야무지다, 결기가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⑤ 눈, 눈초리, 입, 코끝 등의 신체 어휘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나타낸다. ⑥ 사람의 성품이나 특정 행동을 지시하는데,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표현한다. ⑦ 사물을 나타내는 어휘와 공기할	① ‘관능적이다, 매력적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② 구체적인 일을 표현하는데, ‘까다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③ ‘억척스럽다, 맹렬하다’는 뜻이 있다. ④ 어떠한 사물이나 행위, 상황을 더 이상 보거나 듣기 싫을 정도로 흥할 때 사용한다.

	<p>때 ‘힘이 매우 세고 독하다, 정도가 매우 심하고 독하다’는 뜻을 표현한다.</p> <p>⑧ ‘눈물’과 공기하여 ‘쓰디쓴 일을 당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p>	
--	---	--

<표 42> ‘짜다/ 鹹’의 은유적 의미

	짜다	鹹
공통점	후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특정한 물건이 지닌 고유한 냄새를 나타낸다.	
차이점	<p>① 일반적으로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너무 지나칠 때, 어떠한 일에 지나치게 야박할 때 사용한다.</p> <p>② 특정 행위나 상황의 결과가 실속이 있고 알찬 경우에 ‘짹짹하다’를 사용한다.</p> <p>③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못마땅한 기분을 나타낼 때 ‘짹짹하다’를 사용한다.</p> <p>④ 규모가 있고 야무지다는 뜻을 지닌다.</p> <p>⑤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한다.</p> <p>⑥ 어떤 상황에 대한 대상이 예상이나 기대 이상의 가치를 지니거나 이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표현한다.</p> <p>⑦ 어떤 행위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p>	<p>①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슬프다는 의미도 나타낸다.</p> <p>② ‘평범하다, 보통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p> <p>③ 부사로 쓰여 ‘전부,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p> <p>④ 한 사람이나 사업은 곤궁에 처하였을 때 어떠한 기회를 잡아 다시 일어서는 경우를 말할 때 사용한다.</p> <p>⑤ 남자가 여자를 성희롱하는 경우에 사용한다.</p>

	는 감정으로 못마땅한 기분을 나타낸다.	
--	-----------------------	--

용례에 따른 은유적 의미 대조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의 은유적 표현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두 나라의 언어적 특징과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대표적으로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발생하게 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인지적 원인이다. ‘인지’는 인간이 정보를 얻고 저장하고 분류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두 언어 간의 차이는 인간의 인지에서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사물과 세계를 감지하는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이 과정에 융합시킨다. 이로써 구체적인 감각은 은유를 통하여 사물에 대한 이해와 인지의 과정에까지 전이된다. 부동(不動)한 언어에서 미각어의 확장 의미 항목이 다양해지는 것은 인간의 인지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梁惠正 2011: 14). 예컨대, 한국의 미각어 ‘시다’의 은유적 의미는 ‘눈/ 눈썹이 시다’의 형태로 사람의 어떠한 형태와 태도에 대해 몹시 싫어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반면에, 중국의 미각어 ‘酸’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슬프다, 질투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거나, ‘활동’에 대해서 ‘진부하다’는 표현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여 ‘몹시 슬퍼하다, 애처롭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둘째는 역사적 원인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시물⁷⁴⁾이 변하지만 명칭은 비교적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윤평현 2013: 184). 예컨대, ‘苦’는 쓴맛뿐 아니라 선호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음식의 맛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이러하여 중국어에서 ‘苦’는 사람의 몸이나 마음의 질병, 그리고 빈곤함과 같이 불행한 상태 등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낙관적 자세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가 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吃苦耐勞’를 하나의 인품으로 삼고,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긴다. 맹자도 ‘天將降大任於斯人也, 必先苦其心誌, 勞其筋骨, 餓其體膚’라고 하였다(김준기 2008: 26). 이러한 점에서 ‘苦’는 어떤 일을 할 때 고생을 참아내고 열심히 노력하다’는 의미도 지니게 되었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예를 들어 매운 맛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의 성격에서 ‘시집살이’로 추상화

74) 윤평현의 『국어의미론 강의』를 참조하면, 지시물(referential theory)은 단어나 문장과 같은 한 언어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지시하는 지시물이라고 본다.

된 “고초(苦椒) 당초(唐椒) 맵다 해도 시집살이만 못하더라.”가 있다. ‘고초’나 ‘당초’는 역사적으로 조선 중기 이후, 고추가 보편화됨에 따라 언어적으로 그 표현이 대중화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셋째는 물질적 원인이다. 물질문화란 인간이 실제 세계에서 만들어낸 모든 물질적인 성과에 해당하며, 생활 기구, 음식, 복장, 건축 등을 포함한다. 음식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음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미각어는 인간의 물질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는 사회적 원인이다. 사회문화란 인간이 물질문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회 제도, 생활 방식, 풍습과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언어는 사회 문화의 산물이자 문화의 중요한 매개체이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생활은 언어의 내용을 결정하고 언어, 특히 어휘는 사회생활을 반영한다. 정착한 민족은 고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언어에서도 이러한 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곧, 정착한 민족은 일정한 음식 문화와 생활 풍습을 지니기에 사고방식 또한 고정적이라 할 수 있다. 민족에 따라 맛에 대한 분류는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이 반영된 미각어의 은유적 용법에도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張靖華 2005: 16). 예컨대, 중국어에서 ‘鹹豬手’는 남자가 여자를 성희롱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鹹’는 광둥어 ‘鹹濕’의 준말에 해당하며, ‘下流, 好色⁷⁵⁾’의 의미를 지닌다. ‘豬’는 중국어로 돼지를 나타내는데, 〈서유기〉에 등장하는 저팔계는 호색가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돼지는 여색을 밝히는 동물에 해당한다⁷⁶⁾. 다시 말해서, ‘鹹豬手’는 여색을 밝히는 남자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본 연구는 기본 의미와 은유적 의미 측면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의 대조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생활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미각어의 은유적 의미 양상과, 이에 기반하여 파생된 유행어로서의 의미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어 학습자와 중국어 학습자 모두에게 실제 언어생활에서 나타나는 미각어의 의미와 그 사용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의 언어

75) ‘鹹’의 어원에 대해서 학자들의 관점은 분분하다. ‘鹹’은 易經에서 나온 ‘鹹卦’이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의 운몸을 함부로 만진다는 것을 말한다. ‘鹹’은 바로 ‘撩擾’의 뜻이다.

76) 晉代の 『誌怪錄』, 『搜神記』, 唐代的 『烏將軍記』에서 다 수태지는 여색을 밝히고 암태지는 사람은 희롱하는 이야기가 있다.

학습자에게 미각어의 의미 습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언어적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진(2016), 「한중 미각형용사의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창운(2006), 「우리말 맛 그림씨의 어휘장 연구- ‘달다’류와 ‘시다’류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6, 한국언어학회, pp.5~23.
- 권희정(2005), 「중국어의 미각어 형태 및 의미확장 연구」, 『CHINA 연구』 5, pp.79~138.
- 권희정(2008), 「한중 기본 미각어 의미확장 공통성 연구」, 『남도문화연구』 15, pp.7~38.
- 김동환(2005),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
- 김준기(1999), 「국어 미각어의 고찰,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의미학』 5, 한국어 의미학회, pp.249~269.
- 김준기(2008), 「미각 형용사의 의미 고찰」, 『어문학』 100, 한국어문학회, pp.1~30.
- 김찬구(1986), 「國語의 味覺表現 語義에 대한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선(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미각어휘 교육방법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료자자(2010), 「한중 맛 그림씨의 인지 의미론적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만림(2010), 「의미 대조를 통한 한국 미각어 교육연구 :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해수(1982), 「맛 그림씨의 날말밭」, 『한글』 176, 한글학회, pp.67~92.
- 송정근(2005), 「미각형용사의 형태론」, 『형태론』 7-2, pp.303~323.
- 신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취야(2016),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미각 고정표현 교육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기(2014), 「한중 미각 형용사 대조 연구-시다, 달다, 쓰다, 맵다, 짜다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경희(2003), 「은유의 이론과 본질」, 『崇寶語文』 19, 崇寶語文學會, pp.211~231.

- 왕천(2013), 「한중 미각 형용사의 대조 연구--의미 전이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완방려(2016), 「한중 미각형용사 확장의미의 대조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양(2013),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형용사의 확장의미 대조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선희(2008), 「음식 맛과 관련된 프랑스어와 한국어 표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평현(2013), 『국어의미론 강의』, 역락.
- 이경수(2012), 「한국어 미각 형용사의 의미와 개념화」,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명(1988), 「국어 미각 표시 어군의 구조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pp. 335~358.
- 이동길(1988), 「現代國語 味覺語의 語場分析」, 慶北大學, 碩士學位論文.
- 이민(2011), 「음식 {맛}과 관련된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 대조 연구-{달다}와 {쓰다}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김동환(2006), 『은유와 영상도식』, 한국문화사.
- 이승정(2003), 「飲食 관련 중국어 어휘의 含意 연구-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 석사학위논문.
- 이원(2016), 「한중 미각형용사 ‘달다/ 甜, 쓰다/ 鹹’의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2005), 「미각어의 의미확장 양상」, 『한국어 의미학』 18, 한국어의미학회, pp.149~174.
- 정재운(1988), 『우리말 감각어 연구』, 한신문화사.
- 정재운(1989), 「미각동사의 어휘고찰」, 『어문논집』 28-1, 안암어문학회, pp.351~376.
- 조윤경(2009), 「한중 미각형용사 ‘짜다, 싱겁다’ 대비연구」, 『중국조선어문』 5, pp.20~24.
- 주문형(2015), 「한중 미각 형용사 ‘시다’ 계열 어휘의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시권(1989), 「國語 味覺詞의 構造」,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최순희·왕흔(2014), 「한중 미각어와 한국문화교육」, 『한국언어문화교육학』 6,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13~17.
- 풍금란(2013), 「한중 미각 형용사 인지 의미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정영(2011), 「한·중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대조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정원(2010), 「은유의 의미기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윤구(1985), 「국어의 미각표현 어휘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진(2002), 「미각 형용사에 관한 의미론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金善熙(2012), 「汉韩基本味觉词对比研究」, 复旦大学, 碩士學位論文.
- 金菩提(2009), 「韓中節日飲食文化比較」,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 姜晓 (2010), 「漢語味覺詞研究綜述」, 『語言與文化』 3, 語言與文化研究, pp.158~161.
- 劉嬋(2011), 「英漢‘學習’隱喻表達方法的認知分析」,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劉一雙(2009), 「淺析中韓味覺詞意義對比-以苦為主」, 『西南民族大學學報』, pp.228~230.
- 牛小艾(2012), 「認知視角下英漢語中‘酸’通感隱喻的對比分析」, 『渭南師範學院學報』 8, pp.22.
- 李金蘭(2005), 「味覺隱喻化的認知結構及語義特征」, 『修辭學習』 3, pp.56~58.
- 梁惠正(2011), 「中韓味覺形容詞比較研究」,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 伍鐵平(1989), 「不同語言的味覺詞和溫度詞對客觀現實的不同切分」, 『語言教學與研究』 1, pp.120~137.
- 王明(2009), 「現代漢語基本味覺詞語義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媛(2004), 「现代汉语味觉词研究」, 山东大学, 碩士學位論文.
- 王銀平(2005), 「漢英味覺範疇隱喻對比研究」,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張韶岩(1999), 「日漢語基本味覺詞引申義之比較」,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6, pp.35~38.
- 張靖華(2005), 「漢語味覺詞的文化審視」, 內蒙古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Lakoff. G.& M.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나익주 옮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사전 자료 참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국어국문학회(2000), 『국어대사전』, 민泉書館.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출판사.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2002), 『古今漢語詞典』, 商務印書館.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05), 『現代漢語辭典』, 商務印書館.

李行健(2004), 『現代漢語規範字典』, 語言出版社.

인터넷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在線新華詞典>, <http://xh.5156edu.com/>

SJ-RIKS Corpus, <http://db.koreanstudies.re.kr/>

CCL語料庫檢索系統, <http://ccl.pku.edu.cn/>